

04

April 2025
vol. 284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ring in Style



CLASH
DE
Cartier





블랙도 아닌, 화이트도 아닌, 블루.

CHANEL

J12

J12 BLEU 칼리버 12.1
블루 세라믹으로 완성된 새로운 J12.
샤넬 매뉴팩처의 디자인과 조립으로 탄생한 위치.
CALIBER 12.1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와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검증 기관(COSC)에서 인증한 크로노미터.

Contents

- 06_SELECTION 1 우아한 귀족적 품위를 담은 뉴 패션 코드.
- 08_SELECTION 2 멋을 아는 남자의 선택, 현대적 감성을 더한 귀족 스타일.
- 09_CLASSY SQUARE 스퀘어라 더 특별한 위치 셀렉션.
- 10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2_한 세기의 창조적 지형을 수놓은 선구자를 기억하며 20세기 일본 문화 예술계를 수놓은 인맥의 중심점 같은 존재인 이노쿠마 겐이치로(Genchiro Inokuma)가 올봄부터 <엑스포 이노쿠마(EXPO INOKUMA)>라는 전시로 대중을 만난다.
- 14_돌과 바람, 그리고 빛으로 채운 소우주 일본의 석재 산지로 유명한 가가와현 무레 마을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조각가 중 한 사람, 이사무 노구치의 아틀리에가 있다.
- 15_GARDEN STATE 봄에 움튼 꽃 사이로 드러난 동식물 모티브 주얼리의 낭만적 움직임.
- 16_마직 리듬을 따라 흐르는 봄날의 축제 사람과 예술을 연결하겠다는 뜻에서 출범한 강릉 국제아트페스티벌(GIAF). 지역과 현대미술이 만나 어떻게 세계인과 소통하는지 보여주며, 강릉이라는 무대에서 현대미술이 어떤 장면을 마주치며 발전해나갈지 궁금하게 만든다. 4월 20일까지.



- 17_EXHIBITION IN FOCUS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사건의 흐름, 회복을 꿈꾸는 자연의 작은 소리까지 담은 작가들의 전시를 소개한다.
- 18_NEW DUALITIES 대비와 이중성, 충동을 강조하며 양극단의 미학적 코드를 절묘하게 믹스해 완성한 클래식 드 카르띠에가 한번 더 진화한다.
- 22_GET THE LIST 스타일라이시한 당신의 봄 옷장을 위한 제안.
- 24_TREASURE ISLAND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이 하이 주얼리 컬렉션 트레저 아일랜드(Treasure Island)를 태국 푸켓의 트리스라(Trisara)에서 다시 한번 선보였다.
- 26_JOURNEY OF GREAT MOMENTS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Loro Piana)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럭셔리 하우스로는 처음으로 상하이 푸둥 미술관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선보였다.
- 28_ART OF CRAFTSMANSHIP 로에베의 탁월한 가족공예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은 새로운 백이 탄생했다. 1846년 하우스가 창립된 본고장, 마드리드를 본떠 명명한 '마드리드 백'이 그 주인공이다.
- 30_SHINE HIGH 온화한 빛 사이로 더 화려하게, 더 고귀하게. 포멜라토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압도적 형태와 빛에 관하여.
- 31_NEW IN NOW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해줄 2025 잇 백 포트레이트.
- 38_EDITOR'S PICK 스킨케어부터 장밋빛 립과 블러셔, 아국적인 향에 이르기까지, 주목할 만한 이달의 뷰티 리스트.



'두 얼굴의 주얼리'로 정의할 수 있는 클래식 드 카르띠에는 기하학적 라인을 통해 매종의 클래식한 DNA를 계승함과 동시에 피코 장식과 스티드를 통해 과감한 핑크 스타일의 미학을 드러낸다. 더 과감하고 볼드해진 디자인으로 개성 있는 연술이 가능하다. 문의 1566-7277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TOD'S

행운의 상장을 담은 참이 달린 로즈드방
브로치가 가격 미정 **디올 파인 주얼리.**

렉스 미니 트레인 케이스
코스메틱 백. 14×9.5×8.25cm,
38만원 투미.

포인트 헤어 액세서리로 제격인
메탈 및 데님 소재의 헤어
가죽 미정 사별

중 0.81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얄스
그라프티그라피에 다이아몬드 뺨을 2천95만원 그라프
G R A P H Y

파스망트리와
퍼트리밍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배가한
실크 자카드 소재의
드레스 6백90만원
발렌티노.

100% 리넨에 화려한 레터링과 그래픽 자수를 수놓은 가레 에두알 백 52만5천원
랑방 컬렉션.

화이트래커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장식의 인디케이터를 세팅한 J12 다이아몬드 베젤워치 칼리버 12.2, 33mm 가역정사넬워치.

보랏빛 애미시스트와 총
0.44캐럿 다이아몬드를 더해
완성한 마르케리타 이어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나비가 연상되는
라운드 오픈 토 슈즈
일리아(ILIA) 가격
미정 **지안비토 로시.**

브랜드 로고로 장식한
리본 벨벳 헤어 클립
84만원 프라다.

볼드한 핑크 밴드에 파베 크리스털로 하트모티브를 장식한 돌시스(Dulcis) 칵테일링 13만9천원 **스바로브스키**.

만개한 꽃을 닮은
레 페르르 브로치
1백5만원 셀린느 by
에디슬리먼.

아이코닉한 에나멜
버클, 크리스털
플라워 장식 등이
여성스러운 카프
스킨 소재 벨 비비에
벨트 1백93만원
로저 비비에.

사각 프레임에 핑크 그라데이션 렌즈를 장착한 선글라스
6만원 끝로에 by 케어링 아이웨어 코리아.

다들 파인 주얼리 02-3280-0104
다미아니 02-515-1924
샤벨 워치 080-805-9628 랑방컬렉션 1800-5799
투미 02-539-8160 프라다 080-522-7100
지안비토 로시 02-3479-6129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샤벨 080-805-9628 그라프 02-2256-6810
발렌티노 02-2015-4655 셀레스 비 에디 올리먼 1577-8861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커머리 아이웨어 코라리 02-517-6060

에디터 신정임 스타일리스트 임희영

for her
Selection

우아한 귀족적 품위를 담은 뉴 패션 코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S
T DUPONT**
PARIS



날아가는새를 모티브로 했다. 실버 피나시 브라스, 블루 & 옐로 세라믹으로 제작한 DIOR AND HYLTON NELL 버드 브로치 가격 미정 **디올 맨**.

클래식한 록에 포인트 액세서리로 제작한 아세테이트 소재 선글라스 66만원 **보테가 베네타 by 케어링 아이웨어 코리아**.

로즈 골드 소재에 블랙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 에포크 네크라스 가격 미정 **다미아니**.

브랜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펜디 클럽 엠블럼 로고 자수를 새긴 옐로 컬러 캐시미어 니트 3백만원대 **펜디**.

올타군 세이프에나케트 컷블루스오울브스키 지트코니아를 수작으로 세팅한 메트릭스(Metric) 핑글 388만원 **스웬보르스키**.

모노그램 패턴이 돋보이는 카프스킨 소재 스피디 P9(Speedy P9) 반들리개 30, 32x22.5x18cm, 1천9백90만원 **루이 비통**.

그림같이 좋은 블랙 카프 스킨 리베르티(LIBERTY) 수성 펜 1백20만원 **S.T. 듀퐁**.

카드, 포켓 4개와 중앙 슬립 포켓으로 구성된 10.5x17.25x0.23cm, 40만원 **루이비통**.

보트 슈즈 스타일의 해롤드 카프 스킨 태슬 드라이버 90만원대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디올 맨 02-3280-0104 케어링 아이웨어 코리아 02-517-6060
다미아니 02-515-1924 펜디 02-544-1925
베르사체 02-3213-2279 풀라운지 02-3438-6142
스워로브스키 02-1522-9065 S.T. 듀퐁 02-2106-3577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라다 080-522-7199
스티븐 웹스터 02-2231-1592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루미 02-539-8160 태그호이어 02-3479-6021

에디터 정영민

for him Selection

멋을 아는 남자의 선택, 현대적 감성을 더한 영 & 리치 스타일.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헤어, 손목, 네크라인 등 다양한 곳에 레이어드할 수 있는 알라 실크 스카프 19만8천원 **피에르 루이 마시아 by 폴라온지**.

고풍스러운 그래픽 디자인으로 화려함을 더한 카메오 실크 타이 36만원 **베르사체**.

시그넷 스타일로 대범한 디자인이 특징인 18K 옐로 골드 소재 플립사이드 소베르 핑키 링 가격 미정 **스티븐 웹스터**.

입체적인 패턴을 베이스로, 소재에 옐로 5백50만원대 **프라다**.

선레이 브러싱 처리한 스모키 퍼플 다이얼이 매력적인 테그호이어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투르비옹 퍼플 42MM 5천98만원 **태그호이어**.

(위부터 차례대로) **에르메스 워치 케이프 코드 스몰**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있는 에르메스의 아이코닉한 워치 컬렉션으로 지름 31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으며, 화이트 자개 다이얼로 온은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3천7백만원대. 문의 02-542-6622

파넬라이 루미노르 두에 무도오로 풀리시드 및 브리시드 파넬라이 골드테크™ 소재로 완성한 지름 38mm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화이트 산-브리시드 다이얼로 모던한 품격을 가미했다. 오토매틱 기계식 P.900/MP 칼리버로 구동한다. 4천9백만원대. 문의 02-1670-1936

까르띠에 탱크 아메리칸 제1차 세계대전 시 사용한 탱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44.4x24.4mm 옐로 골드 케이스에 새틴 브리시드 실버 마감 다이얼을 적용하고 세마-맷트 네이비 블루 옐라게이트 가죽 스트랩으로 완성했다.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천4백만원대. 문의 1877-4326

피아제 라일라이트 토노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된 스퀘어 케이스가 돋보이는 워치로 27x38mm 사이즈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 양쪽에 약 1.79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86개를 두 줄로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다이얼은 자개로 완성했으며 블랙 세라믹 크라운을 매치했다. 피아제 자체 제작 438P 울트라-신 기계식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6천8백만원. 문의 1668-1874

메거 르클레르 리베르소 클래식 스몰 듀에토 34.2x21mm 사이즈의 네오난 핑크 골드 케이스에 같은 소재의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주얼리 워치 같은 품격을 전하며 앞·뒷면에 다른 다이얼을 채택해 무드나 록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매치 가능하다. 특히 뒷면의 우아한 블랙 다이얼에는 다이아몬드를 위아래 두 줄로 세팅해 더 매력적이다. 5천4백50만원대. 문의 1877-4201

샤넬 워치 보이-프렌드 꾸뛰르 마드모아젤 샤넬 여사의 아이코닉한 트윈드 재킷을 다이얼에 담은 워치로 블랙 코팅 스틸 케이스에 블랙 래커 다이얼을 적용하고 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01캐럿을 세팅해 완성했다. 배젤은 샤넬 백의 체인에서 모티브를 따온 18K 골드 체인으로 장식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돋보여 줬다. 퀴즈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부쉐론 리클레 워치 미디움 브랜드의 대표작인 아이코닉 타임피스로 특히 받은 인터체인저블 스트랩으로 매일 기분에 따라 다양한 브레이슬릿으로 교체 가능하다. 고전적이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의 21x35.5mm 사이즈에 버티컬 고티롱 모티브로 독특한 굴곡이 있는 스틸 케이스를 적용했으며 화이트 래커 다이얼과 로마숫자 인덱스로 완성해 고풍스러운 무드를 선사한다. 5백만원대. 문의 02-6905-3322

에디터 정영민

Classy Square

스퀘어라더 특별한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Daily Deluxe

클래식 라인의 계보를 잇는 '샤넬 25 핸드백'을 소개한다. 퀼팅 디테일, 가죽을 엮은 체인, 멀티 포켓 등 브랜드의 시그니처 코드를 아낌없이 담았다. 실용성을 기반으로 디자인적 미감도 뛰어나야 하는 요즘 가방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호보 백 스타일로 가볍고 유연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스몰부터 라지까지 사이즈는 총 세 가지로 출시된다. 블랙과 화이트, 옐로, 라이트 그린 등 컬러도 다양한 편. 그중에서도 데님 소재의 '25 스몰 핸드백'은 레더 핸드백보다 활기차고 캐주얼한 매력을 지녀 따뜻한 봄날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하기에 제격이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WHITE ELEGANCE

티없이 순수하고 우아한 화이트 골드 주얼리의 반짝임.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화인 주얼리 코코 크리쉬 스몰 링** 팔링 모티브 밴드 중앙에 총 0.1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2개를 포인트로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그라프 버터플라이 컬렉션 파베 다이아몬드 밴드 스티드 이어링**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나비가 날갯짓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2백89만원. 문의 02-2256-6810 **쇼메 비 마이 러브 펜던트** 별집에서 영감받은 화이트 골드 소재 육각형 모티브에 총 0.6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5개를 섬세하게 담았다. 9백만원대. 문의 1670-1180 **포렐라토 누도 솔리테어 클래식 화이트 다이아몬드** 뱅글 오픈형 디자인으로 좌우 각각 6.5캐럿, 4.1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총 64개를 장식해 다각도로 눈부신 광채를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Pink Beauty

보가만 해도 사랑스러운 핑크 패키지의 뷰티템. (위부터 차례로) **돌체앤가바나 뷰티 노 퍼프 카페인 아이 패치** 컷피 추출물과 아데노신을 함유해 환한 눈기를 선사한다. 2pcs×5 5만4천원대. 문의 02-6979-1558 **크리드 엘라다리아** 상큼한 만다린 향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75ml 가격 미정. 문의 02-3449-5312 **불가리 로즈 골디아 블러싱 일라이트 핸드크림** 생기 넘치는 플로럴 노트가 특징이다. 40ml 6만5천원대. 문의 02-6105-2120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Ready to Wash Off

스킨케어는 세안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모공 속 노폐물, 미세먼지 등을 말끔히 비워야 피부 속 깊이 제품의 유효 성분을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 겔랑 '오기드 임페리얼 더 폼 인 크림' 약솜셔날 클렌징 케어는 피부 세정은 기본, 스킨케어 못지않은 효능을 발휘하는 페이스 클렌저다. 브랜드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메가 성분과 히알루론산 등을 함유해 피부 탄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피부 속 수분 충전까지 가능하다. 물과 만나면 쫄쫄하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변하는데, 이는 자극 없이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정돈해준다. 세안 후 피부가 싱겁게 땅기는 이에게 특히 강력 추천. 150ml 16만9천원. 문의 080-343-9500



Bravo, My Bag!

투미의 핵심 컬렉션인 알파 브라보에 브랜드 고유의 컬러를 활용한 블랙 오닉스 '노마딕 백팩(Normadic Backpack)'을 새로 추가했다. 나일론, 폴리우레탄, 가죽 등 고성능 섬유로 이루어진 소재를 사용해 탄탄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넉넉한 사이즈의 구조적 디자인 덕분에 램프와 아이패드 등은 물론 다양한 소지품을 담기 충분하다. 노마딕 백팩을 포함해 '서치 백팩'과 '리저브 백팩', 그리고 '컴파스 크로스 백' 등 총 네 가지 스타일로 구성되었다. 전 제품 높은 수납력과 간결한 디자인으로 아웃도어와 데일리 백으로 활용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539-8160

Like a Peach!

샤넬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품이자 스테디셀러인 일명 '복숭아 메이크업 베이스'가 에콜라 프리미에 라 바즈 메이크업 베이스로 새롭게 출시된다. 미네랄 파우더를 함유한 포물리는 모공, 주름과 같은 결점을 가려 피부를 균일하게 정돈해주며 한층 밝고 고르게 만들어준다. 또 프리미에로 플라워로 불리는 일랑일랑 추출물과 순도 높은 나이아신아미드를 함유해 건조한 계절에도 피부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하는 스킨케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페르말 콤플렉스는 외부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생기 있게 빛나는 피부 광채를 유지해준다. 이 무적의 메이크업 베이스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으며, 메이크업 첫 단계에 사용해 피부를 한 톤 밝히고 다음 단계 메이크업을 돕는 조력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30ml 9만2천원. 문의 080-805-9638



Lucky Spring

화사하게 만개한 꽃과 천상의 피조물 같은 나비 등 자연물에 시적 서정성과 세련된 감각을 불어넣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 올해는 아이코닉한 럭키 스프링 컬렉션으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한다. 럭키 스프링 컬렉션은 메종의 소중한 두 가지 테마인 자연과 행운을 주제로 서정적인 세계와 삶을 향한 긍정적 비전을 구현한다. 특히 무당벌레와 플라워 모티브를 통해 메종이 사랑하는 계절, 새롭게 태어나는 봄을 기념한다. 그중 플럼 블로섬 주얼리는 꽃 가운데에서도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특히 잘 녹여낸 매화꽃을 모티브로 해 심플하고 모던하면서도 록에 포인트를 준다. 브레이슬릿부터 네크리스, 이어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18K 로즈 골드에 화이트 머더오브펠로 순수한 매화꽃을 잘 표현했다. 럭키 스프링 컬렉션으로 새롭고 산뜻한 봄을 맞이해보자. 문의 1877-4128



백, 지갑, 클러치 등에 달아 개성 있는 연출을 도와줄 키 링 4.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그니처 스티치 로고와 심플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키 링 가격 미정 **매종 마르자엘라**. 문의 02-772-3234. 골돌이를 모티브로 한 로키론 타탄 모헤어 테디베어 키 링 48만원대 **비비안 웨스트우드**. 문의 1899-6407. 루이 비통의 시그니처 로고로 제작한 스프링 스트리트 체인 백 창 & 키 홀더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숭방울이 연상되는 가죽 트릭 가격 미정 **마우마우**. 문의 02-541-7443 **포토그래퍼 최민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선 스컬리: 수평과 수직

대구미술관을 수놓아온 해외 거장 전시의 계보를 이을 만한 작가의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다. 2025년 봄을 장식할 국제전으로 기획된 <선 스컬리: 수평과 수직>. 1945년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 스컬리(Sean Scully)는 회화, 사진, 조각, 판화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지만 특히 깊은 감성이 느껴지는 현대 추상회화의 거장으로 일컬어진다.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여러 겹으로 덧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풍부한 화면에서도 미묘한 색채감과 질은 공간감으로 특징지어지는 그의 작업은 동시대 추상회화를 은유와 영상, 휴머니즘으로 이끄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대구미술관 전시에서는 196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대표작과 신작을 아우르는 회화, 드로잉, 조각 등 7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그의 예술적 여정을 폭넓게 조망한다. '빛의 벽(Wall of Light)', '랜드라인(Landline)' 연작 같은 대표작을 비롯해 작가 활동 초기인 1960년대의 구상 작품, 정밀한 선들이 교차하는 구성의 1970년대 구조적인 격자(Supergird) 회화, 캔버스 패널 안에 또 다른 패널을 배치하는 인셋(inset) 기법을 활용한 1980년대 대형 회화 등을 선보이며,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4m 높이의 기묘비적인 대형 철 조각 '대구 스택(Daegu Stack)'과 작가 특유의 풍부한 색채로 도색한 알루미늄 프레임에 층층이 쌓아 올린 '38'을 미술관 야외 공간과 어미홀에 각각 설치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오는 8월 17일까지. 글 **고성연**

EXHIBITION



Time Master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 매종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가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차세대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 칼리버 7138을 공개한다. 이 무브먼트는 워치메이킹 사상 최초로 모든 기능은 물론 퍼페추얼 캘린더까지 올인원 크라운 하나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새로운 무브먼트는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한 41mm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와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18K 샌드 골드로 제작한 2개의 41mm 로열 오크 모델에서 처음 선보인다. 5년간의 개발 끝에 완성한 이 시계학적 업적으로 오데마 피게는 또 한번 창조적 지평을 제시한다. 문의 02-543-2999



MIMOCA_엑스포 이노쿠마(EXPO INOKUMA)

한 세기의 창조적 지형을 수놓은 선구자를 기억하며

지난가를 일본 교토에 출장으로 머물던 와중에 선물처럼 주어진 1박 2일 여행의 종착지는 마루가메라는 시코쿠 지방의 소도시였다. 가가와현(県) 중서부에 자리한 항구도시로 인구는 10만 명가량이다. 주말을 틈탄 이 짧은 버스 여행을 결심하게 만든 '키워드' 중 하나는 쫄깃하고 두툽한 면이 일품인 사누키 우동(가가와현의 옛 이름이 사누키다)이고, 다른 하나는 마루가메의 명소인 '미모카(MIMOCA)'였다. 평소 좋아하던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Yoshio Taniguchi)가 설계한 미술관의 별칭이다. 마루가메 기차역에서 나오면 살짝 놀랄 정도로 시야에 바로 들어오는 이 아름다운 미술관은 거장의 건축을 대하는 즐거움도 선사하지만, 그 토대가 된 인물을 '발견'하는 재미도 안겨준다. 20세기 일본 문화 예술계를 수놓은 인맥의 구심점 같은 존재인 이노쿠마 겐이치로(Genichiro Inokuma)다. 올봄부터는 <엑스포 이노쿠마(EXPO INOKUMA)>라는 전시로 대중을 만난다.



아기자기한 풍경과 평온한 정취로 인기를 누리 고 있는 일본 '소도시 여행' 추천치 목록을 보면 끝이 없을 듯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도도부현'으로 정렬되는 일본 행정구역에서 현(県)만 해도 43개이고 도시 숫자로 따지면 8백 개를 향하고 있다. 그중 가가와현은 인구가 1백만 명도 되지 않은 작은 현이지만 문화 예술 향유자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다. 세계적인 일본 현대미술 축제인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로 유명한 예술의 섬 나오시마가 속해 있어서다. 일본 특별명승지로 지정된 리쓰린 공원과 반세기 넘는 역사를 지닌 민가 박물관 시코쿠 무라가 있는 다카마쓰를 비롯해 이곳의 운치 있는 항구를 출발점으로 펼쳐지는 세토내해의 여러 섬은 저마다 예술적 자취를 뽐낸다.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가와현 자체를 '예술 현'이라 부를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의 아틀리에와 자택, 정원 등을 원형 그대로 볼 수 있는 미술관을 비롯해 디자이너 조지 나가

시마의 작업장, 그리고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춘 미술관인 미모카(MIMOCA)가 있다.

'미술관은 영혼의 휴양소여야 한다'
믿음의 구현

다카마쓰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이 걸리지 않고, 기차를 탄다면 오카야마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한적한 도시 마루가메. 기차역 출입구에서 도보로 1분밖에 걸리지 않는 미모카의 정식 명칭은 마루가메 이노쿠마-겐이치로 뮤지엄 오브 컨템퍼러리 아트(The Marugame Genichiro-Inoku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MIMOCA). 미술관 이름 자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노쿠마 겐이치로는 미모카의 바탕이 된 예술가다. 1902년 다카마쓰에서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마루가메에서 학교를 다니 다 도쿄로 떠나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과 디자인, 예술 운동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면서 20세기 중·후반 일본 문화계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예를 들면 아직도 활용되는 미쓰코시 백화

1 일본 시코쿠 지방의 가가와현 마루가메에 자리한 미술관 미모카(The Marugame Genichiro-Inoku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MIMOCA) 정면 모습. 건축 거장 다니구치 요시오가 설계했고, 가가와현 출신의 예술가로 미술, 건축,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으며 일본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이노쿠마 겐이치로(1902~1993)의 작품 **2**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2** 미술관 설립의 근원이 된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뜻에 따라 미모카는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기차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3**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작품, 'Keio University mural Democracy', 1949. Photo by Akira Takahashi **4**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대표적인 벽화 작품인 JR 우에노역(Ueno Station)에 설치된 'Freedom'. 원래 1951년 완성되었다가 1984년 복원 작업을 거쳤다.



점의 포장지 디자인도 그의 창작물이다. 1938년 프랑스 파리로 떠나 수년간 체류하면서 앙리 마티스를 사사하는 시기를 보냈고, 1955년에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자신의 스튜디오를 꾸리면서 20년간 머무르기도 했다. 당시 이사무 노구치, 마크 로스코, 로버트 라우션버그, 조지 나카시마, 존 케이지 등과 인연을 만든다. 풍성한 호기심과 왕성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국내외를 오가면서 풍부한 인맥과 폭넓은 경험을 쌓은 그는 1980년대 후반 1천 점이 넘는 자신의 작품을 가가와현에 기증했고, 1991년에는 마루가메의 명예 시민으로 추대됐다(현재 드로잉까지 합치면 미모카의 이노쿠마 소장품은 2만여 점에 이른다). 이노쿠마 겐이치로와의 인연, 그리고 그로 인해 다채롭게 꽃핀 가가와현의 창조적 자산을 기리는 미모카가 문을 연 해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2년 뒤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이 머무르는 집처럼 미술관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마치 이 작은 도시의 수호신처럼 기차역 앞에서 35년 세월을 보낸 미모카는 첫인상부터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듯 친근하게 다가온다. 지난가를 첫 방문에 이어 올봄 오사카 엑스포와 궤를 같이하는 듯한 전시 <엑스포 이노쿠마(EXPO INOKUMA)>를 앞두고 다시 찾았는데 오래된 친구처럼 정겹게 느껴졌다. 아마도 이런 정서의 미학에는 이노쿠마의 천진난만한 드로잉이 새겨진 건물의 파사드,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절로 동심을 자아내는 조각들



5 동서양 예술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고 동시대 일본 예술가들과 협업을 도모하며 창조적 인맥의 허브 역할을 했던 이노쿠마 겐이치로 모습. Photo by Akira Takahashi **6** Genichiro Inokuma, 'Portrait of a Woman', 1926. **7** 이노쿠마 겐이치로가 말아 70년 넘게 활용되고 있는 미쓰코시 백화점의 전설적인 포장지 디자인. **8** Genichiro Inokuma, 'Self-portrait', 1924. **9** Genichiro Inokuma, 'Night', 1937. **10** 다카마쓰의 명물 중 하나인 민속 박물관 시코쿠 무라. **4**월 중순부터 <Form, People, Living>전을 시작으로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창조적 여정을 기리는 전시를 연일까지 펼쳐게 된다. **11** 단계 겐조가 설계를 맡아 공공 건축의 새 바람을 일으킨 다카마쓰에 있는 가가와현 청사의 1층 내부 풍경.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벽화가 보인다. **12** 가가와현 청사의 옥상은 과거 시민들을 위한 카페 공간을 꾸린 '핫플'이었다. **13** 근대건축 자신으로 여겨지는 가가와 현립 체육관. 역시 단계 겐조의 작품이지만 아쉽게도 유지 비용 문제로 철거될 예정이다. ※ 1, 2, 7, 10, 13 Photo by 고성연 ※ 5, 6, 8, 9 ©The MIMOCA Foundation ※ 11~12 Photo by 오미네 다쓰미(Tatsuma Omine)

기증된 돌 조각과 더불어 그 자신의 사랑스러운 조각과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데, 햇살이 한 겹하는 이 공간의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절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하다.

창조적 인맥 지형의 구심점

뉴욕 모마의 신관 설계를 맡았고 교토 국립박물관 신관, 도요타 미술관 등의 작업으로 알려져 있는 다니구치 요시오는 자기 PR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 집중했던 인물로 '건축가들의 건축가'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지난해 말 타계했다. 일본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9명이 배출한 '건축 강국'이지만, 언젠가 이름이 새겨지길 (개인적으로) 바라게 되는 자장이다. 하지만 미술관 설립을 둘러싼 얘기가 오갔을 당시에는 1937년생인 다니구치는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었다(오히려 그의 건축가 부친 다니구치 요시로가 이노쿠마의 동시대 인물이다). 그런데 건축가들의 네트워크를 다지는 조직을 만들 정도로 건축을 사랑했던 이노쿠마는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요시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는 미래가 기대되는 예술가"라고 강력히 추천했다. 다니구치 요시오가 자신의 커리어 초창기에 실무를 배운 선배로 일본 건축계의 구루인 단계 겐조(1913~2005)

도 이노쿠마와 끈끈한 인연을 지니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중대한 산물이 공공 건축의 참신한 랜드마크로 족적을 남긴 가가와현 청사다(1958년 완공). 일본과 해외의 가교 역할을 하며 고향 땅의 문화 예술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 데 발벗고 나섰던 이노쿠마는 당시 '디자인 지사'라는 별칭까지 지녔을 정도로 문화 예술에 진심이었던 가가와현의 지사 가네코 마사노리에게 단계 겐조를 추천했다. 노출 콘크리트의 거친 질감을 살리는 브루탈리즘의 맥락을 따랐지만 건물 곳곳을 생동감 있는 원색으로 수놓은 이 청사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옥상 카페를 열었는데, 당시 '가장 핫한' 장소로 널리 회자되며 인기를 끌었다. 옥상 카페만이 아니라 청사 앞 정원도 일종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이 건물은 일본의 재건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공공 건축으로 자리매김했다. 1층 로비의 경쾌한 타일 벽화는 이노쿠마의 작품이고, 가구와 디자인 등 곳곳의 요소도 당대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창조적 구심점이었던 이노쿠마의 흥미로운 생애와 철학은 <엑스포 이노쿠마>전(오는 7월 6일까지)과 더불어 다카마쓰의 민속 박물관으로 유명한 시코쿠 무라에서도 전시 시리즈로 펼쳐져, '협업 정신'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 고성연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의 정원 미술관

돌과 바람, 그리고 빛으로 채운 소우주

일본의 석재 산지로 유명한 가가와현 무레 마을.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디선가 짹짹 울리는 망치 소리와 흙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퍼진다. 그리고 길 끝, 거대한 2개의 돌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치 이스터섬에 우뚝 서 있는 모아이 석상처럼 웅장하고 신비로운 모습이다. 혹시 이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한 조각가가 홀로 자신의 문명을 새기고 있었던 걸까? 바람과 돌, 빛과 그림자가 침묵 속에서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곳.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조각가 중 한 사람, 이사무 노구치의 아틀리에다.

돌의 땅, 무레에서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 1904~1988)는 일본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3세에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치 못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술학교에서 아간 강의를 들으며 조각을 익혔다. 1927년에는 현대 조각의 선구자 콘스탄틴 브랑쿠시를 사하며 본격적으로 조각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각의 형태를 넘어 공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연구하며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나갔다. 1999년 개관한 '이사무 노구치 가든 뮤지엄 재팬(The Isamu Noguchi Garden Museum Japan)'은 그의 예술 세계를 아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담장을 두른 미술관 부지로 들어서면 1백50점 넘는 조각 작품이 안팎으로 펼쳐져 있다. 이사무 노구치가 생전에 머물던 일본식 가옥과 더불어 직접 설계한 널찍한 조각 정원 역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미술관 부지의 기초를 다지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는 왜 이 작은 시골 마을을 작업 공간으로 선택했을까? 그 시작은 1956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정원을 설계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경용 석재를 찾던 그는 시코쿠 지방에서 일본 3대 화강암 중 하나인 아지석을 발견했다. 특히 가가와현 다카마쓰에 있는 무레는 뛰어난 석공 기술과 오랜 채석 역사를 지닌 곳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곳을 그저 돌 공급지가 아닌 '창작의 거점'으로 삼게 된 데는 화가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노쿠마는 노구치에게 "여기에 좋은 돌이 있다"며 가가와현을 소개했고, 이후 노구치는 석공 이즈미 마사토시와 협업해 무레에 아틀리에를 세우고 작업을 이어갔다.

자연을 사랑한 조각가의 아틀리에

무레에서 보낸 20년은 이사무 노구치에게 가장 왕성한 창작 시기로, 돌의 물성에 몰입한 시간이었다. 그는 공간과의 관계를 고민하며 작품을 배치하는 방식까지 조각의 일부로 여겼다. 아틀리에에 놓인 조각들은 생전 그가 직접 배치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작가 고유의 철학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대표작 'Energy Void' (1971)는 일본 전통 창고를 개조해 조성한 전시실 쿠라(Kura)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총 길이 3.6m, 무게 17톤의 화강암 조각으로,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는 불교의 선(禪)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공(空, void)' 개념을 탐구하며, 비움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조각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유는 같은 공간에 있는 'Sun at Midnight' (1989)에도 이어진다. 붉은 돌과 검은 돌이 교차하며 낮과 밤, 빛과 어둠이 끝없이 순환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조각의 중심을 비움으로써, 존재와 공허가 공존하는 조각을 빚어냈다. 지난해 말 새롭게 문을 연 '라이팅 하우스'는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아카리(Akari)' 조명 시리즈도 자리한다. 1951년, 일본 기후에서 전통 종이등 제작 방식을 접한 그는 닥나무 화지와 대나무 골조를 활용한 접이식 조명을 디자인했다. 그리고 일본어로 '빛'을 뜻하는 '아카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방, 다다미, 그리고 아카리뿐이다"라고 여러 번 말하며, 조명이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예술이 되기를 바랐다. 오늘날 아카리는 여전히 일본 장인들의 손에서 제작되며 빛을 밝히고 있다. 미술관 밖으로 나와 언덕을 오르면 조각 정원 '천국(Heaven)'이 모습을 드러낸다. 노구치는 이곳을 '하늘에서 내려온 정원'처럼 구상했다. 돌들은 흐르는 강물처럼 배치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폭포처럼 보인다.



1 아틀리에 초입, 환영의 의미를 지닌 돌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Photo by 강주희
2 뮤지엄 안내소 겸 아트숍. Photo by 고성연
3 노구치가 디자인한 놀이기구 'Octetra'와 'Play Sculpture'. 뮤지엄 근처 কেন페이 광장에 설치되어 있다. Photo by 고성연
4, 5, 6 아트숍에서 노구치 관련 아트 북과 아카리 조명, 포스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Photo by 大峯達典, 고성연

언덕 맨 위에는 거대한 고동빛 바위가 놓여 있다.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구멍들을 더해, 멀리서 보면 백상아리 머리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파트너였던 이즈미 마사토시는 이사무 노구치의 유해 일부를 이 돌 안에 안치했다. 젊은 시절, 조각의 과거와 미래를 탐구하며 세계를 떠돌던 그는 말년에 무레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돌을 깎았다. 그에게 조각은 대지와 연결되는 동시에 해방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렇게 그는 이곳에서 하나의 소우주를 완성했다.

시간을 담는 조각

노구치의 아틀리에 곳곳에는 미완성 상태의 조각이 놓여 있다. 완성된 작품에는 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지만, 미완의 조각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이제 그를 대신해 시간과 땅이 조각을 매듭지어간다. 돌을 조각하는 과정에서는 지우거나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각각의 바위는 모두 독창적이며, 완성되기 전까지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다. 노구치는 자연이 남긴 흔적을 존중하며 작업했고, 그의 조각은 시간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어떤 작품은 수년간의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9년에 걸친 작업 끝에 탄생한 'Myo' (1966)도 그중 하나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조각들은 생동감을 간직하고 있다. 그가 삶과 자연을 연결했던 예술가임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닐까. 특정한 예술 사조에 갇히지 않고, 우연과 실험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조형 미학을 만들어간 그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늘 경계에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깎아낸 조각은 결국 하나로 이어졌다. 자연을 품은 조각, 그리고 조각을 품은 자연. 이사무 노구치에게 조각이란 인간을 내려다보는 기념비적 존재가 아니라, 공간과 호흡하며 세월을 함께 건다는 동반자였다. 나무는 사라져도, 돌은 남는다. 지금도 그의 조각은 조용히 말을 걸어온다. 글 강주희(재원 에디터)

주소 3519 Murecho
Mure, Takamatsu,
Kagawa 761-0121
운영 시간 화·목·토요일 /
사전 예약제(인원 제한)
*투어는 약 1시간 소요
1~6월, 9~12월
10:00/13:00/15:00
7~8월 10:00/11:30
문의 +81 87-870-1500



(위부터 차례대로) 불가리 피오레버 링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4장의 로즈 골드
꽃잎 모티브에 0.64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야생화를 형상화했다.
1천6백80만원, 문의 02-6105-2120
타사키 오펜런스 링 그린 에메랄드로
인사귀를, 테이퍼드 컷 다이아몬드와 루비,
핑크 사파이어로 꽃잎을 정교하게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58
다미아니 버터플라이 아이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날개에 블루 토파즈를 더해 생동감 있는
나비를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13-2141
그라프 버터플라이 컬렉션 엘테 세이트 파베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다섯 마리의 나비 모티브부터
잡금장치까지 총 3.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춤추게 세팅해 다각도로 화려한 빛을 발한다.
5천1백62만원, 문의 02-2256-6810
다미아니 마르케리타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옐로 시트린으로 꽃을
형상화했으며, 오픈형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13-2141
타파니앤코 산 슬림버제 바이 타파니 버드
온 어 락 브로치 큼직한 50캐럿의 쿠션 컷
시트린, 총 2.59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71개와 0.01캐럿의 라운드
핑크 사파이어로 바위에 앉은 새를 대담하게
그려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디올 파인주얼리 밀리 카니보라 링 정원
식물에서 영감받았다. 수작업으로 완성한
형형색색의 래커 마감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 속 경쾌한 멋까지 놓치지 않았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에디터 김하얀

Garden State

봄에 움튼 꽃 사이로 드러난 동식물 모티브 주얼리의 낭만적 움직임.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25)

미적 리듬을 따라 흐르는 봄날의 축제

강릉이라는 도시를 바탕으로 사람과 예술을 연결하겠다는 뜻에서 출범한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이 지난 3월 14일 막을 올렸다. 설화의 신비가 가득한 도시 곳곳의 다양한 공간과 시각 미술을 잇는 축제로, 두 차례에 걸쳐 가을에 열렸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봄날을 장식하고 있다. 공동체의 이야기와 개인의 서사가 교차하는 공간이 어우러지는 이 행사는 지역과 현대미술이 만나 어떻게 세계인과 소통하는지 보여주며, 앞으로 강릉이라는 무대에서 현대미술이 어떤 장면을 마주치며 발전해나갈지 궁금하게 만든다. 4월 20일까지.



"강릉에 갈까?"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설린다. 경포대와 정동진 등 명소를 품은 강릉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도시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단오제(음력 5월), 소금강청학제(10월), 커피 축제까지 열리는 '축제'의 도시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강릉으로 작업실을 옮기며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 이런 배경에서 벌써 3회를 맞이한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이하 GIAF)의 존재감은 더 눈여겨볼 만하다. 2022년 처음 등장한 GIAF는 경험과 기억의 축으로 확장된 새로운 강릉을 탐색한 '강릉 연구'라는 주제를 선보였고, 1913년 강릉 김씨 부인의 여정을 기록한 오래된 기행문의 제목을 딴 〈서유록〉을 내세운 2023년 두 번째 페스티벌에서는 대관령 옛길을 걷는 여정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강릉 이야기' 3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올해 페스티벌의 제목은 '예사자, 오시자'. 강릉단오굿에서 악사들이 사용하는 구름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박소희 GIAF 총괄 감독은 "GIAF는 예술과 자연과 역사, 사람

1 제3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F)의 공식 포스터. 2 강릉역에 설치된 김재현 작가의 '씨를 트래킹'(2025). 3 옥천동 웨어하우스에서 상영 중인 정연두 작가의 '싱크페이션 #5'(2025). 4 강릉대도호부 관아 야외에 설치된 윤석남 작가의 '1,025 사람과 사람 없이'(2003~2008). 5 강릉대도호부 관아 전대청에 설치된 호라이르 시르키시안의 'Sweet & Sour'(2021~2022). 6 강릉대도호부 관아 야외에 설치된 안민욱 작가의 '락키헤르츠 노추산 모성탐갈(대운)'(2025). 7 옛 함외과의원에 설치된 이해민선 작가의 '덜 굳은 사물, 흰'(2025). 8 일곡칸짜리 여관에 설치된 서다솜 작가의 '부엌살림'(2025)과 '흔적'(2025). 9 창포다리를 수놓은 김재현 작가의 '플로어 맵핑'(2025). 10 이양희 작가의 '산조'를 공연하는 작은공연장 단. ※ 2~10 Photo by 고성연

에 관한 이야기"라며 "특히 올해는 대관령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 고개를 넘어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 그 사이에서 탄생한 수많은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한' 존재는 강릉 곳곳에 숨어 있었다. 강릉역을 시점으로 옥천동 웨어하우스, 강릉대도호부 관아, 옛 함외과의원, 창포다리, 일곡칸짜리 여관, 작은 공연장 단,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등 강릉의 특별한 공간에 작가 11명의 작품이 스며들었다. 국보로 지정된 객사문과 보물로 지정된 칠사당이 위치한 강릉대도호부 관아에서는 작가 4인의 작업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우선 버려진 개울(3백67점)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 윤석남 작가의 설치 작업과 강릉 단오장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리를 담아낸 안민욱 작가의 신작 '락키헤르츠'는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야외를 수놓고 있다. 대도호부의 중대청에 자리한 홍이현숙의 영상 작업은 냄새, 소리, 진동 등의 감각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초월한 공간을 다루는데, 마치 고개를 넘어온 대관령 설화 속 인물들을 만나는 느낌이 든다. 전대청

GIAF 25

에 설치한 아르메니아계 시리아인 3세 호라이르 사르키시안(Hrair Sarkissian)의 작업 'Sweet & Sour'는 오래된 인물과 사라진 장소를 애잔하게 쓰다듬으며 디아스포라의 세계를 다룬다. 시르키시안은 조상이 살던 한초릭(튀르키예에 속한 사촌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아르메니아인은 사촌을 창조 신화와 혁명가의 노래, 전설이 탄생한 곳으로 여겼다)을 직접 방문해 카메라에 담았다.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살을 둘러싼 서사를 전해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영상을 그곳에 가본 적 없는 아버지에게 보여드렸고, 아버지의 표정에 드러나는 감정을 또 다른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영상들은 결국 아버지와 풍경, 저 자신을 오가는 침묵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릉 출신인 김재현 작가의 작품 '씨를 트래킹'이 천장에서 휘날리는 강릉역부터 강릉단오제를 피아노 연주와 결합한 정연두 작가의 신작이 선보이는 옥천동 웨어하우스, 호추니에 작가의 신작 다섯 편을 엮어 만든 영상 '변신술사'를 상영하는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1958년에 교회로 지었다가 2010년 강릉시가 매입해 공연장으로 바꾼 작은 공연장 단(이양희) 등도 올해 GIAF의 무대가 된 역사적인 공간이다. 특히 페스티벌 기간 동안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양희의 산조 공연은 기회가 된다면 '강추'하고 싶다. 오래된 마룻바닥에서 펼쳐진, 한국 전통 무용에 자신만의 안무를 더한 특유의 퍼포먼스는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존재를 초대하는' 듯하다. 강릉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과 병원으로 1940년대 주택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옛 함외과의원에서는 이해민선 작가의 회화와 키아림 작가의 설치 작업을 보여준다. 치료실로 쓰인 방이나 거실 등을 돌아보면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 듯한 모습이 즐겁게 다가오는데, 특히 2층 방에 걸려 있는 이해민선 작가의 신작 '덜 굳은 사물'은 한때 몸을 치료했던 공간을 아름답게 되살리는 듯하다. 1957년에 준공된 일곡칸짜리 여관에서는 서다솜의 신작 '있는'을 선보이는데, 도깨비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그들의 승설과 삶의 태도를 조망한다는 젊은 작가의 기획이 워트 있게 느껴진다.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의 종심 역할을 해온 창포다리에서는 김재현 작가의 '플로어 맵핑'이 바람에 흩날리며 이번 페스티벌 장소들을 현대적인 그래픽으로 마무리했다.

GIAF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강릉 출신 기업인 정상수 회장이 설립한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이 기획했기에 더 의미 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릉을 예술도시로 가꿔보겠다는 의지로 출발해 여기까지 왔다. 2년 뒤에는 조병수 건축가가 설계한 문화 복합 시설도 강포대 근처에 준공될 예정이라 기대감이 높다. 사적인 것들이 때문 가장 멀리 나아가자 강릉의 아름다움을 따라 문화 산책을 하다 보면, 잠깐이라도 다른 세계의 장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글 김수진(객원 에디터)



Exhibition in Focus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역사적 공간에 실제로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기억의 불완전한 틈새가 메워지는 순간이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사건의 틈, 회복을 꿈꾸는 자연의 작은 소리까지 담은 작가들의 전시를 소개한다. 최재은, 김아영, 이형구 등 지금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문제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하는 작가의 작품이야말로 이 봄에 꼭 경험해야 할 '슬기롭고도 영화로운 순간'이 아닐까.



알 마터 주택단지에 담긴 '세계의 모든 것'
#김아영 〈Plot, Blop, Plop〉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진화하며 현대미술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있는 요즘, 아틀리에에 에르메스에서 시각예술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김아영(b. 1979)의 개인전 〈플롯, 블롭, 플롭(Plot, Blop, Plop)〉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김아영 작가는 최근 한국인 최초로 2025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설치미술과 퍼포먼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자유자재로 접목하는 작업 방식도 인상적이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뿐 아니라 석유와 정치, 자본과 정보의 흐름 같은 이슈를 넘나드는 주제 의식도 묵직하게 다가온다. 그녀는 역사와 기억은 모두에게 불완전한 것이기에 리서치 자료를 원재료로 삼으며 이것을 마법 수프를 끓이듯 마구 뒤섞어 결과물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다고. 아틀리에에 에르메스에서 선보인 신작 '알 마터 플롯 1991'(Al-Mather Plot 1991)'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 구조가 흥미로운데, 역사와 과학, 신화와 지정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리서치를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의 '알 마터 주택단지'와 걸프 전쟁이 있었던 1991년, 김아영의 어린 시절이 플래시백으로 왕복한다. 세계의 기원부터 다가를 미래를 광범위하게 아우르지만 역사의 순간을 함께한 작가의 내밀한 고백이 함께해 재미있는 단편영화를 보듯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번 신작은 석유의 기원과 신화 등 20세기의 역사를 석유 관점에서 재구성한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셀'이라는 작가의 제페트 연작을 10년 만에 시각적으로 구체화한 시도라고, 작품의 광범위한 배경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의 '알 마터 주택단지'를 시대의 중심으로 내세워 전쟁의 악몽과 일상의 삶, 꿈과 기억까지 아슬라하게 펼쳐낸다. 현재 김아영 작가는 독일 국립현대미술관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에서 개인전 〈Many Worlds Over〉를 열고 있으며(7월 20일까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 PS1에서도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다.

전시명 〈플롯, 블롭, 플롭(Plot, Blop, Plop)〉 전시 기간 6월 1일까지
전시 장소 아틀리에 에르메스

1, 2 서울 도산의 아틀리에에 에르메스에서 선보인 김아영 작가의 신작 '알 마터 플롯 1991'(2025) 스틸 이미지. 단편영화처럼 흥미로운 '알 마터 플롯 1991' 영상은 한번도 가본 적 없는 역사적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실사 촬영에 더해 생성형 AI부터 3D 기법, 달광학적 이미지를 과감히 혼합해 트랜스미디어의 실험을 추구한 이 영상에서는 김아영 작가가 그간 개발해온 새로운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3 블랙 재킷을 좋아하는 김아영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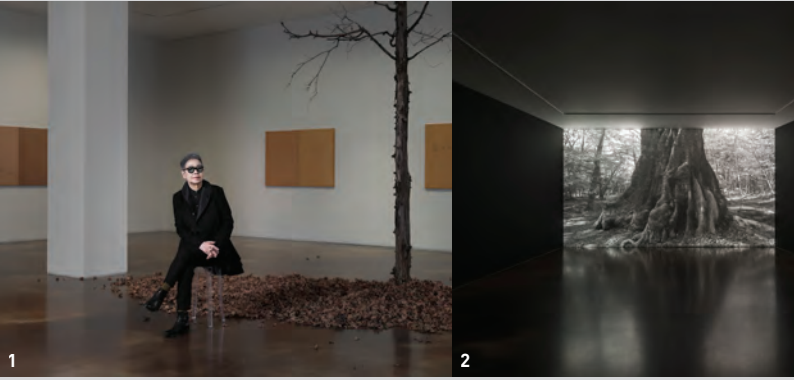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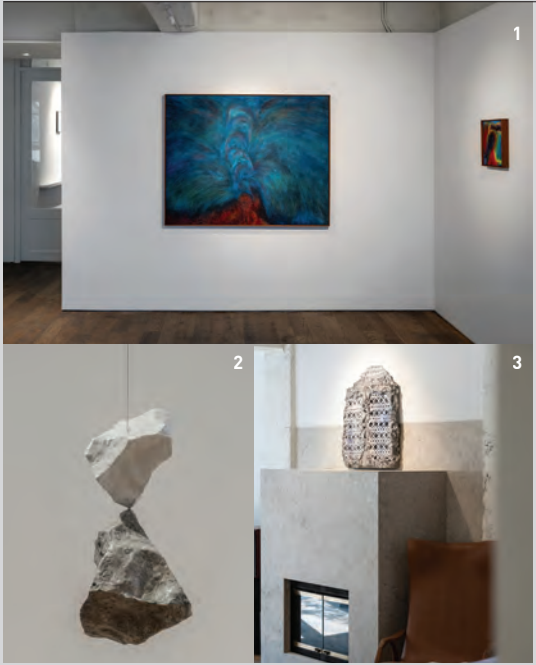
※ 1-3 ©에르메스 재단 제공



예술로 연결되는 모두의 공간
#강진, 이은우, 이형구, 임선규, 최상아 〈모두의 바다 Where the Line is Drawn〉

작품은 정말 좋지만, 내 공간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품을 공간에서 더 빛나게 할까? 새로운 아트 신에서는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작품과 어울리는 공간과 가구 배치에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한 라나서울이 최근 공간을 확장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한남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라나서울은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집으로 초대받은 듯한 느낌을 주는 '하우스 갤러리'다. 요즘 미술계의 러브콜을 다수 받고 있는 맹지영 큐레이터가 함께한 이번 전시는 '드로잉'에 무게를 두고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확장된 형태로 작업을 만들어가는 다섯 작가(강진, 이은우, 이형구, 임선규, 최상아)의 작품을 각 작가의 생의 한 챕터처럼 펼쳤다. 특히 3차원 공간에 그려진 드로잉처럼 공간에 설치된 이형구 작가의 작품이 눈에 띄는데, 작가의 정교한 집도 과정으로 탄생한 설치 작품이 몸의 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우주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매일 일상을 기록하듯 그리고 오리며 붙이는 작업을 하며 한 분야의 숙련된 장인처럼 '기다림과 만남의 반복된 여정'을 보여주는 최상아 작가의 작업도 흥미롭다. 이렇게 작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서사로 시작했지만 모두의 공간과 서사로 확장해 결국 개개인이 밀도 높게 연결되어 하나의 세계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이 하나의 세계가 '모두의 바다'로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니, 모두 각자만의 '바다'로 떠나는 게기가 될 수도 있다. 각각의 작품이 하우스 갤러리 분위기에 맞게 거실이나 서재, 계단 옆에서 불쑥불쑥 존재감을 드러내 예술 작품이 공간에 어떤 힘을 불어넣는지 다시금 느끼게 한다. 전시명 〈모두의 바다 Where the Line is Drawn〉 전시 기간 5월 2일까지 전시 장소 라나서울을 김수진(객원 에디터)

1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강진 작가의 'Bleu'(2025), Pastel on paper, 107×132cm. 2 행성에 불시착한 행성 길기도 하고,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형구 작가의 'Polar Docking'(2025), Papier-mâché, pigment, aluminum, magnets, 540×160×120(d)cm. 3 종이에 축연을 주제로 드로잉이나 설치 작업을 하는 임선규 작가의 '벽장 안의 뜰(The Garden in the Closet)'(2024), Drawing, relief, 63×61×5(d)cm. 임선규 작가는 최근 몇 년간 종이 파편을 으깨고 뭉쳐 작업의 바탕이 되는 종이를 직접 만드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 1-3 이미지 제공, 라나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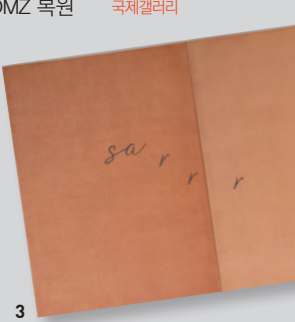


자연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유대
#최재은 〈자연국가〉

"자연은 인간을 원하지 않지만, 인간은 자연을 원하죠. 솔직히 '자연'이라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은 '관심'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절실하게 작업 중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시간, 자연과 인간의 복합적 관계를 사유하는 작품을 다양한 매체로 선보이는 최재은 작가(b. 1953)는 자연에서 출발한 광범위한 예술 여정을 이렇게 압축했다. 국제갤러리에서 함께한 이번 개인전은 지난 50년간 생태계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잘 보여주는데, 오랜 관심사인 '숲'을 다양하게 해석한 작업도 선보였다. 작가가 현재 거주하는 교토의 동네 숲을 산책하며 발견한 낙엽과 꽃잎을 재료로 물감의 안료를 만들고 캔버스에 칠한 '숲으로부터'라는 회화 연작이다. 늦가을 숲속을 거닐며 들은 낙엽이 사르르 떨어지는 소리, 숲 너머 먼 산에서 들려오는 산울림 소리, 빗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작품 표면에 아름답게 적어갔는데, 이를 연달아 보면 마치 숲속의 음악당에서 펼쳐지는 음표 같다. 전시장 바닥에는 작가가 직접 쓴 시 '나무의 독백'을 설치하기도 했고, 거대한 고목의 밑동을 느끼게 3백60도 회전하며 세계를 사유하게 하는 영상 작품 'Flows'도 있다. 지난 10년여간 진행해온 'DMZ 프로젝트'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비무장지대가 생태계 보전 지역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자연 복원을 위한 작가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규모 국제 협업 프로젝트로, 여기에서 발전한 '자연국가' 시리즈는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하다. 작품이러기보다 DMZ 복원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DMZ 복원을 위한 엄청난 식재의 종류와 양을 정리해 이를 자그마한 '종자 불'에 담아 드로잉으로 뿌린다는 방대한 계획이다. 이를 함께 수행할 수십만 명의 파트너를 모집 중이라고 하니 (작가가 만든 웹사이트에서 DMZ 지도를 살펴보면 원하는 구역에 맞춰 '종자 불' 기부 약속을 등록할 수 있다) 마치 '자연 국가'를 책임질 송고한 리더처럼 느껴진다.

전시명 〈자연국가〉 전시 기간 5월 11일까지
전시 장소 국제갤러리 K2(1~2층), K3

1 최재은 작가. 2 최재은 작가의 영상 작품 'Flows'(2010), Video 17min 20Sec. 이 작품은 거대한 고목의 밑동을 느끼게 하는 풍경. 3 최재은 작가의 '숲으로부터(From the Forest)'(2025), Natural dyes and charcoal pencil on canvas, 100×72.7cm each, 2 sets. 이 작품은 분홍색과 황토색, 옅은 갈색을 오가며 재현 불가능한 자연의 색을 담아 작가가 거닐었던 숲의 가장 정직한 소리를 화백에 담은 결과물이다. ※ 1-3 Photo by 최재은 스튜디오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New Dualities

대비와 이중성, 충돌을 강조하며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 미학적 코드를 절묘하게 믹스해 완성한 남다른 주얼리 컬렉션, 클래식 드 까르띠에가 한번 더 진화한다.

2019년 클래식 드 까르띠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다. 까르띠에만이 선보일 수 있는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디자인이라고 반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 하이 주얼리 메종답지 않은 독특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약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클래식 드 까르띠에는 전설적인 LOVE 컬렉션과 저스트 앵 플루 컬렉션의 명성을 잇는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클래식 드 까르띠에는 과거와 현재, 고전적 우아함과 과감한 도전, 익숙한 스타일과 독창적 스타일을 넘나들며 정형화된 주얼리 디자인에서 벗어나 강렬한 개성과 자유로운 매력을 드러낸다. 날카로워 보이지만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기하학적 형태의 디자인은 대담하면서도 때론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뽐낸다. 이러한 양면성은 클래식 드 까르띠에의 DNA이며 나이, 성별의 경계를 허물면서도 자유 속에서 또 다른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주얼리 컬렉션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이 또 한번 진화한다.

1 옐로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2 옐로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3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과 핑크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핑크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클래식 드 까르띠에가 볼륨감을 키워 메종의 상징적 코드가 선사하는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한다”

탁월한 노하우

새로운 클래식 드 까르띠에 역시 단순하고 우아한 구조에 오랜 세월을 아우르는 노하우를 담은 복잡한 디자인을 기조로 한다. 직선적인 라인에 6백 개의 각기 다른 부품을 조립해 완성한 두 줄 모티브로 구조적이고 볼드한 감성을 담아냄과 동시에 유동성을 지녀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유연한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약 50시간의 수작업이라는 까르띠에 메종만의 세심한 작업을 요한다. 특히 이러한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나 스톤을 세팅한다면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 수반된다. 새로운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에는 바로 이러한 메종의 노하우를 듬뿍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컬렉션의 새로운 크리에이션은 클래쉬의 상징적 디자인 요소인 볼륨감과 고귀한 스톤을 더했으며, 유연함을 강조하는 메시(mesh) 형태로 재탄생했다. 까르띠에 특유의 세련된 스타일에 고급스러운 스티드와 다이아몬드를 결합해, 주얼리가 지닌 양면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1 클래식 드 까르띠에의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는 캠페인 사진. 2 길이를 극단적으로 늘려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어 다채로운 연출을 돕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3, 4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XL로 더 강렬해진 끌루 까레

지난번 XL 사이즈의 등장으로 볼륨감 넘치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를 선보인 까르띠에 크리에이션은 또 한번의 진화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XL 버전의 피스를 선보인다. 훨씬 더 과감해진 두께와 길이로 극적인 볼륨감을 선사하는 이 피스들은 메종의 상징적 코드의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한다. 링, 이어링, 네크리스에 이어 브레이슬릿도 핑크 골드 스티드와 비즈가 한층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리미티드 에디션의 진귀한 디자인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학적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여기에 산호, 아마조나이트, 타히티 진주 등 다양한 소재도 추가했다. 크리소프레이즈에 핑크 골드 스티드와 압생트 그린 비즈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반지, 귀고리, 팔찌의 매혹적인 변주가 돋보여 특별한 과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4



3



1

1 새로운 소재인 크리소프레이즈를 추가해 독특하고 개성 있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이어커프와 링. 2 (위부터) 가운데 핑크 골드 비즈로 볼륨감을 더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가운데 핑크 골드 비즈로 크기와 볼륨을 더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가운데 옐로 골드 라인을 두 줄로 돌려 더 강력한 볼륨을 선사하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화이트 골드 소재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3 (위부터) 옐로 골드에 크리소프레이즈를 과감하게 세팅해 사선을 사로잡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옐로 골드 소재에 길이를 돌려 두 줄로 연출 가능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옐로 골드 소재에 크리소프레이즈 비즈를 매치해 볼륨감과 개성을 부여한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4 가운데 커다란 골드 비즈를 세팅해 과감한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강인함과 유연함 사이

새로운 클래식 드 까르띠에에서 또 한번 눈여겨 볼 부분은 유연한 디자인이다. 기존의 디자인에서도 유연함과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과장되고 길어진 브레이슬릿과 네크리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목에 두 번 감을 수 있는 롱 네크리스는 물론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끌루 까레 디자인은 피부에 독특한 촉감을 선사하며 목과 손목을 우아하게 감싼다. 또 기존의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에 이어 옐로 골드 소재를 새롭게 선보인다. 더 녹진한 컬러인 옐로 골드 색상의 클래식 드 까르띠에는 더 커진 볼륨감과 어우러져 새로운 스타일을 정의한다. 이처럼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빛을 활용하도록 진화했으며 다채로운 착용 방식으로 스타일의 절정을 보여준다. 더욱 확장된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정민

1 유연한 디자인이 더욱 돋보이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2 옐로 골드 소재로 처음 출시하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3 옐로 골드 소재로 강렬함을 선사하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 링.



2



1



3

Get

The

List

스타일리시한 당신의 봄 옷장을 위한 제안.

PHOTOGRAPHED BY YI JOO HYUK



GRAFF

18K 화이트 골드와 총 3.32캐럿
다이아몬드로 섬세한 꽃송이를
표현한 그라프 와일드 플라워
컬렉션 라운드 다이아몬드
드롭 이어링 4천3백57만원
그라프 문의 02-2150-2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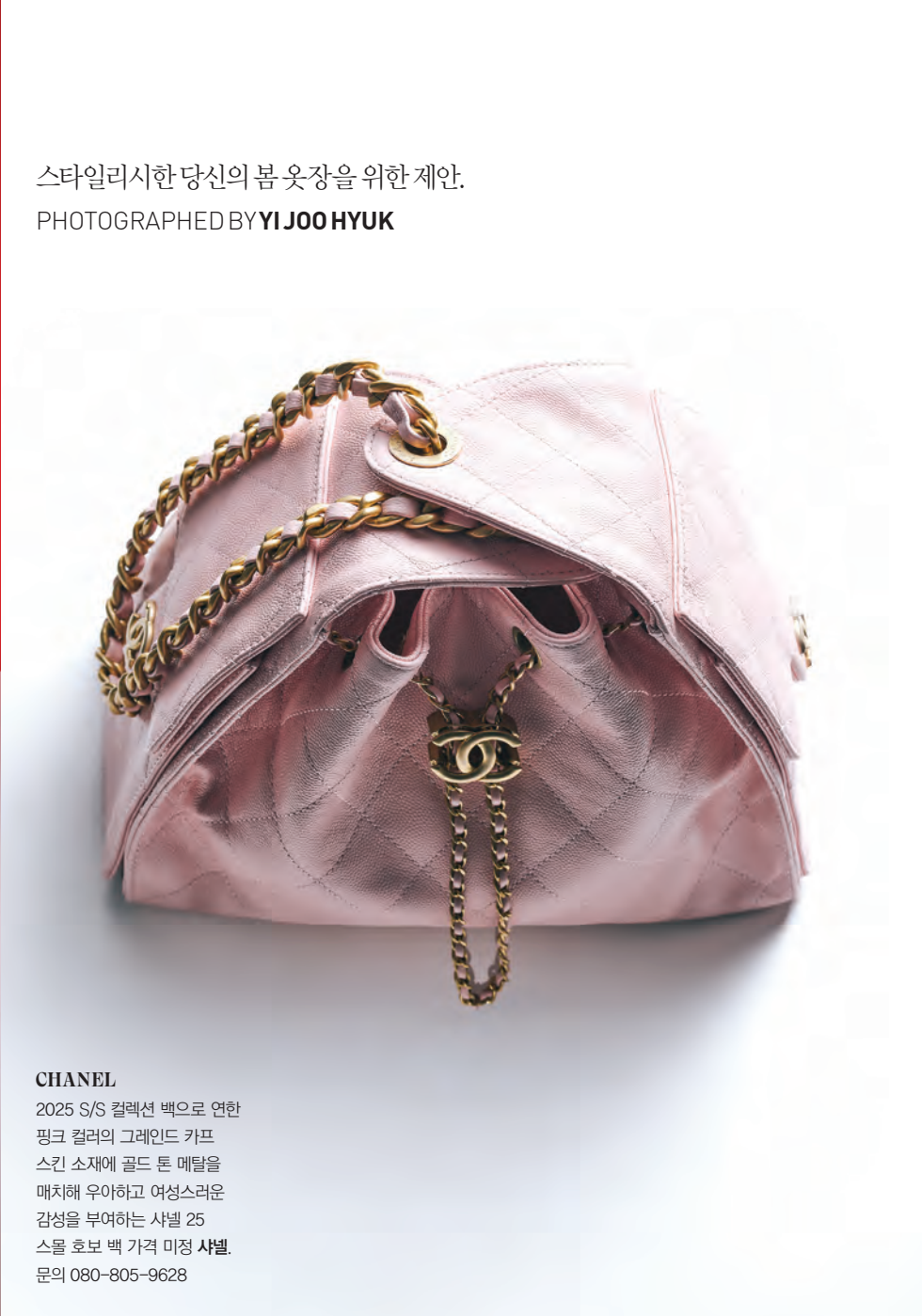
S.T. DUPONT

1953년 오드리 햅번을 위해
브랜드 최초로 제작한 여성용
핸드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리비에라 백.
아이코닉한 라인 2 라이터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클래식하고도
모던한 감성을 전한다. 3백95만원
S.T. 듀퐁 문의 02-2106-3577



OMEGA

지름 36mm 세드나™ 골드
케이스에 실버 다이얼과 로마숫자
인덱스로 모던하고 클래식한
매력을 주며, 양 측면 곡선을
따라 흐르듯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드 빌 트레저 1천6백만원
오메가 문의 02-6905-3301



CHANEL

2025 S/S 컬렉션 백으로 연한
핑크 컬러의 그레인드 카프
스킨 소재에 골드 톤 메탈을
매치해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감성을 부여하는 샤넬 25
스몰 호보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 WATCHES

지름 38mm의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베젤과
인디케이터로 우아한 감성을
추가한 J12 워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문의 080-805-9628



HUBLOT

독특한 스카이 블루 컬러 마이크로
블라스트 및 플리시드 스카이
블루 세라믹 소재에 블랙 및
라이트 블루 라인 스트러처드
러버 스트랩을 매치해 스포티한
감성을 더한 42mm 사이즈의
스피릿 오브 백뱅 크로노그래프
스카이 블루 4천만원대 위블로
문의 02-540-1356



TUMI

천연 그레인 가죽으로 제작해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돋보이며
부드러운 실루엣과 세련된
드레이프 디자인이 포인트인
발로리 토트백 1백13만원
투미 문의 02-539-8160



JAEGE-LECOULTRE

지름 34mm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실버 그레이 기요세
다이얼로 여성스러운 감성을
더하며 6시 방향 문페이즈, 플로렐
아워 숫자 인덱스, 핸즈가 우아한
감성을 전하는 랑데부 클래식 나잇
& 데이 미디엄 1천8백50만원
예거 르콜트르 문의 1877-4201
에디터 성경민



Treasure Island

프랑스 하이 주얼리 & 워치 메종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테마틱 하이 주얼리 컬렉션 트레저 아일랜드(Treasure Island)를 태국 푸켓의 트리사라(Trisara)에서 다시 한번 선보였다. 작년 11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처음 공개한 이후 아시아에서는 최초 공개다. 태국의 자연과 어우러진 신비롭고 평화로운 여정을 따라가본다.

반클리프 아펠의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여행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이 집필하고 1883년에 최초로 출판된 소설 〈보물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반클리프 아펠은 소설 속 주인공들이 난관을 극복하며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에 매혹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생동감과 유머를 하이 주얼리로 구현했다. 또 바람에 흔들리는 이국적인 식물, 잔잔한 듯 신비로운 바다 생물들을 뛰어난 장인 정신과 자유로운 창의성으로 재해석해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이러한 모험, 탐험, 경이로운 곳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 아래 제작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많은 이들의 어린 시절 추억과 동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하이 주얼리 제작에 대한 반클리프 아펠만의 경이로운 노하우를 또 한번 증명한다.

스톤 발견을 향한 여행
반클리프 아펠에게 스톤은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다. 투명도, 컬러, 컷, 무게 등 어떤 요소든 최상의 기준을 갖춘 켈스톤을 엄선하는 것은 물론 각 스톤 고유의 특성을 파악해 하이 주얼리 작품 한 점 한 점의 존재감을 드높인다. 신비로운 열대 섬, 화려한 꽃과 반짝이는 조개껍데기, 다채로운 보석 등 반클리프 아펠은 메종의 방식으로 소설을 재해석하고자 매혹적인 스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메종은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을 통해 섬세한 그라데이션, 경이로운 컬러 조합을 구현하며 켈스톤의 아름다움에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여름 저녁 빛에 반짝이는 링과 깊고 맑은 바다의 컬러를 표현한 아쿠아틱 주얼리, 열대 식물의 오묘한 색감으로 장식한 네크리스 등 반클리프 아펠의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은 많은 이들을 환상과 꿈의 세계로 안내한다.



3개의 챕터로 펼쳐지는 하나의 서사
반클리프 아펠의 새로운 테마틱 하이 주얼리 컬렉션 트레저 아일랜드는 소설 〈보물섬〉의 스토리텔링을 그대로 담은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첫 번째 챕터는 '바다에서 펼쳐지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챕터에서 메종은 디자이너, 스톤 전문가, 장인과 함께 항해에 관련된 언어, 해양의 세계를 골드와 켈스톤을 통해 표현한다. 해적들이 뱃줄로 배에 오르고 기쁨이 일렁이는 부드러운 물결을 헤치며 경이로운 형상의 물고기들과 해저에 숨겨진 보물들을 만나는 모습을 하이 주얼리로 표현했다. 바닷속 신비로운 물고기들이 발레처럼 펼쳐내는 아름다운 동작을 묘사한 프와송 미스테리유(Poissons Mystérieux) 클립이나 다채로운 컬러 스톤의 복잡한 배치로 선박용 도르래를 유쾌하게 재해석한 무스크통 프레스유(Mousqueton Précieux) 이어링 같은 피스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 챕터는 '섬의 탐험'으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섬의 열대식물을 살펴본다. 꿈처럼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섬 해안에 도착해 닻을 내린 후 황금빛 해변에 보이는 아름다운 조개껍데기부터 다양하고 신비로운 열대식물을 하이 주얼리 작품에 그대로 담아냈다. 야자수 잎으로 만든 왕관을 묘사한 팔므레 메르베유스(Palmerie Merveilleuse) 네크리스는 무려 4793캐럿의 카보숄 컷 에메랄드를 센터피스로 세팅한 팔므레 메르베유스 네크리스.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 외에도 반클리프 아펠, 메종의 다양한 하이 주얼리와 위치를 전시한 공간. 반클리프 아펠 아시아-퍼시픽 회장 줄리 클로디 메디나.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 소설의 비유적 요소와 추상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상력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태국 트리사라에 전시된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의 다양한 하이 주얼리 피스. **2** 화이트 골드에 비트라이 미스터리 세팅 컬러 사파이어,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프와송 미스테리유 클립. **3** 만화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비드 베(David B.)의 일러스트. **4** 4793 캐럿의 카보숄 컷 에메랄드를 센터피스로 세팅한 팔므레 메르베유스 네크리스. **5**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 외에도 반클리프 아펠, 메종의 다양한 하이 주얼리와 위치를 전시한 공간. **6** 반클리프 아펠 아시아-퍼시픽 회장 줄리 클로디 메디나. **7**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 주얼리를 착용한 모델. 특히 선박용 도르래를 유쾌하게 재해석한 무스크통 프레스유 이어링이 돋보인다.

Interview

줄리 클로디 메디나(Julie Clody Medina) _반클리프 아펠 아시아-퍼시픽 회장

반클리프 아펠의 테마틱 하이 주얼리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의 아시아 첫 공개를 축하하며 반클리프 아펠 아시아-퍼시픽 회장 줄리 클로디 메디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UESTION 1.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 테마로 〈보물섬〉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클리프 아펠은 창립 이후 문학작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2000년대부터 테마틱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소설 〈보물섬〉은 서정성, 아름다움, 모험, 매혹의 여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섬을 찾아가는 여정의 마법 같고, 자아탐색, 매혹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해적들의 특이하고 유머러스한 면모도 다루고 싶었어요.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은 소설의 비유적 요소와 추상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상력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QUESTION 2. 소설 〈보물섬〉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테마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하이 주얼리와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반클리프 아펠이 1933년에 특허 받은 미스터리 세팅은 계속 진화하며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에는 메종의 고유한 미스터리 세팅을 반영해 8개의 주얼리 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중 2개는 비트라이 미스터리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는 반투명한 스톤을 세팅하고 프롱(prong)이 보이지 않게 하는데, 메종의 오랜 테크닉의 혁신과 진화를 보여줍니다.

QUESTION 3.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무엇인가요? 레시프 코랄리앙(Récif Corallien) 네크리스를 꼽고 싶습니다. 우선 환상적인 5,333캐럿의 태국 산 루비를 세팅했는데, 굉장히 강렬하고 매혹적인 컬러가 돋보입니다. 바닷속 산호의 자연미에 경의를 표하는 작품이죠. 제가 예전에 스노클링을 하면서 아름다운 산호 지역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점점 드물고 귀해지고 있습니다. 레시프 코랄리앙 네크리스는 산호의 특별한 질감을 정교하게 표현해 반클리프 아펠의 독보적인 장인 정신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QUESTION 4. 이번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을 통해 반클리프 아펠이 아시아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아시아 최초 공개지를 태국 푸켓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시아는 우선 매우 다양한 문화를 지닌 지역입니다. 그중 태국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태국은 유산과 전통이 풍부하며, 정제된 감각이 있고,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또 과거에 동남아시아 해역에 해적들이 있었기에 자

연스러운 선택이었을 수도 있죠. 소설 〈보물섬〉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트레저 아일랜드 컬렉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트리사라라는 공간의 아름다움, 자연과의 조화, 평화로운 역시 매혹적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든 바다와 푸릇푸릇한 녹색의 식물, 자연이 가득했고, 메종의 가치와 겹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아시아는 여러모로 메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고,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이 스토리와 메종의 서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QUESTION 5. 하이 주얼리 부문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반클리프 아펠은 하이 주얼리 메종으로서 전하는 스토리에 일관성을 지니고 있고, 오랜 기간 이어온 노하우와 시그니처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분들은 이러한 메종의 스토리텔링과 메시지를 잘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과 고객들은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하이 주얼리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 예술과 문화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기에, 반클리프 아펠이 선보이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의 1877-4128 에디터 성경민



A Journey of Great Moments

레전드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레전드.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Loro Piana)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럭셔리 하우스로는 처음으로 상하이 푸둥 미술관(Museum of Art Pudong in Shanghai)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선보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 로로피아나의 우수성에 대한 열정(If You Know, You Know, Loro Piana's Quest for Excellence)>이라는 이름의 이 전시는 메종의 역사와 유산, 귀중한 원재료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장인 정신(savoir-faire), 6대째 이어져 내려온 특별한 패밀리 유산 등을 집대성해 로로피아나가 쌓아온 역사에 경의를 표한다.



2

로로피아나, 찬란한 1백 년의 유산
럭셔리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로로피아나 제품의 탁월한 퀄리티와 우아한 품격은 매년 선보이는 컬렉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1백 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기나긴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1백 년의 시간만으로도 놀랍지만 한결같은 퀄리티의 우수성과 원단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세계적인 패션 메종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히스토리는 로로피아나는 브랜드의 가치를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열정과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상하이 푸둥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와 함께 로로피아나 100주년 기념 전시는 스케일과 혁신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로로피아나의 유산을 웅장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리고 때론 위트 있게 풀어낸 전시 기획자 주디스 클라크(Judith Clark)는 이 전시를 통해 방문자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최고의 퀄리티를 추구하는 엄격한 노력과 섬유의 미묘한 부드러움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기억에 남을 정서적인 유대감을 제 공했다. 로로피아나 특유의 부드러움과 함께한 우아한

전시가 끝난 후 저녁에는 갈라 디너와 함께 캐시미어 어워드를 진행해 또 다른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지난 30년 동안 로로피아나는 중국의 캐시미어 품질 향상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며,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왔다. 가장 섬세한 캐시미어를 찾기 위한 메종의 노력은 존중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문화적, 감각적, 그리고 촉각적 여정이었다. 이 노력을 통해 중국, 특히 내몽골의 1천 년 유산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1980년대부터 세르지오와 피에르 루이지 로로피아나 형제는 지속적인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염소를 돌보는 목동들과 현장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캐시미어 조달의 발판을 마련했다. 로로피아나의 이 시상식은 단순히 섬유를 더 가늘게 만들기 위한 수치와 기록의 경쟁이 아니라 생산자와 브랜드의 끈끈한 유대감과 존중심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자리이기도 하다. 2024년에는 12.8미크론이라는 세계신기록을 세웠으며, 2023년 수상 당시보다 13.2미크론에서 1미크론 이상 감소했다. 전시는 아카이브 문서, 소재, 세르지오와 루이지 로로피아나 형제의 컬렉션 및 피나코테카 디 바랄로

“**함께 개최된 로로피아나의 ‘올해의 캐시미어 시상식(Cashmere of The Year Award)’은 2015년에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목동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격려하고 보상하는 행사다**”

(Pinacoteca di Varallo)의 작품을 포함한 예술 작품, 가보로 전해 내려오는 섬유와 패브릭, 그리고 소재와 완성품, 지역과 섬유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33개의 특별 제작한 극적인 실루엣을 결합해 로로피아나의 장인 정신을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역량으로 끌어올렸다. 1,000㎡가 넘는 면적의 3개 갤러리에 15개의 전시실이 들어선 이 공간은 브랜드의 DNA와 기원을 보여주기 위해 엄선된 소재, 텍스처, 컬러로 가득한 로로피아나의 세계로 방문객을 안내했다. 부드러운 카펫과 캐시페로 처리한 벽, 나무, 가죽, 황동, 그리고 ‘산피에트리니(Sanpietrini)’ 스톤 같은 천연 소재 등의 요소가 생생한 컬러, 밝은 톤, 베이지 색조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모두가 알다시피 로로피아나의 우수성 추구는 최고의 원료를 찾기 위한 여정에 달려 있다. 쾌활함과 진지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된 전시 타이틀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 로로피아나의 우수성에 대한 열정>은 메종의 서사와 진귀한 소재를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영감 넘치는 존중의 표현이다. 큐레이터 클라크는 1924년 회사를 창립하기 전부터 피에몬테의 발세시아(Val Sesia)에서 물



3



4



5

려받은 가족 유산에 깊이 뿌리를 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같은 계곡의 바랄로(Varallo)에 위치한 방대한 아카이브 소티르코(Archivio Sotirco, 로로피아나의 아카이브)를 탐구했다고. 보존된 최초의 패브릭은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사진, 초기 문서, 샘플 북, 직조 매뉴얼, 관리 기록은 섬유 혁신, 장인 정신,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을 통해 선구적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기록하며, 작은 이탈리아 섬유 회사에서 오늘날의 메종으로 성장한 로로피아나의 발전사를 추적했다.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고유한 세계

전시는 첫 번째 섹션인 'The Story of Loro Piana(로로피아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곳은 미술관 안 미술관으로 만들어져 메종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 역할을 한다. 이 공간은 로로피아나의 유산 공예와 문화 교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중요한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은 산피에트리니 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예술 작품을 가져온 피나코테카 디 바랄로의 자갈길 안들을 연상시킨다. 그중에는 메종의 기원과 고향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로로피아나에 깊은 영향을 준 지역의 전통을 보여주는 피에몬테와 발세시아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아트 섹션을 지나면 바랄로에 있는 아카이브 소티르코에서 발췌한 로로피아나 가족과 사업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공간에는 우아한 조명 아래 놓인 캐비닛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역사적인 사진과 중요한 문서가 담겨 있어 럭셔리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종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어서 트래블러(Traveller), 로드스터(Roadster), 스파냐(Spagna), 홀시(Horsey), 아이서(Icer), 윈터 보아저(Winter Voyager), 디펜더 재킷(Defender Jackets), 오픈워크 슈즈(Open Walk Shoes), 안드레 셔츠(André Shirt) 같은 로로피아나 아이콘을 위한 전용 공간인 'Into Fashion(패션 속으로)' 공간과 만나게 된다. 갤러리를 방문 지나면 흰색 타일을 붙인 연구실이 있는데, 거대한 현미경 밑에 조사 준비를 마친 베이비 캐시미어 더미를 두어 세심하고 정교한 품질관리 공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만 5천 배 확대된 섬유 이미지가 4개의 원형 화면에 영사되는데 이는 현미경 렌즈로 보이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로로피아나 고유의 섬유가 생산되는 지역을 다양한 규모와 높이로 확대하고 축소해 표현한 넓은 'Landscapes(풍경)' 공간은 텍스타일 벽으로 둘러싸



8



9



6



7

여 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전시실에 전시된 중국, 안데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의 미니어처는 각각 캐시미어, 비쿠냐, 데님, 메리노 울, 리넨 같은 희귀한 섬유와 패브릭을 상징한다. 이곳의 부드러운 분위기과 폭신한 벽, 바닥의 카펫은 방문객들이 조각 같은 실루엣에서 보이는 부드러움을 상상하게 한다. 부드러움의 의미는 한쪽은 캐시미어로, 다른 쪽은 재킷 안감 소재로 된 폭신한 벽으로 이루어진 코쿠닝 룸에서 절정을 이루어 안락으로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이어지는 3개의 룸은 캐시미어, 리넨, 레코드 베일(Record Bale) 전통을 지닌 메리노 울을 포함한 로로피아나의 헤리티지 작품에 대한 헌정이다. 첫 번째 갤러리와 두 번째 갤러리를 연결하는 복도는 캐시페로 풍성하게 덮여 있어 방문객들이 벽을 만지며 직접 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10

전시의 두 번째 부분은 로로피아나 역사에서 중요한 도구이자 모티브 '영경귀(Triste)'에 대한 헌정이다. 벽면은 영경귀 꽃 스티칭 패턴이 특징인, 자카드 직조기로 제작된 매트한 킬링 패딩 실크를 포함한 귀중한 직물로 덮여 있다. 이탈리아에서 상하이로 운송된 오리지널 영경귀 기계를 거친 직물을 부드럽게 하는 전통적인 기계로, 자연과 기계가 결합된 독특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영경귀는 1951년부터 로로피아나의 문장에 사용되었다고, 전시회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Restaging Valsesia(발세시아의 재조명)'는 몰입감 넘치는 영화를 통해 방문객들을 로로피아나의 고향으로 데려가, 독창적인 장인 정신을 보여주며 하우스의 오랜 헌신을 표현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치니 보에리(Cini Boeri)가 가구 회사 아르플렉스(Arflex)를 위해 디자인했으며, 로로피아나 인테리어의 귀중한 원료, 캐시미어 패브릭으로 덮은 거대한 소파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 소파는 중국과의 문화 교류의 역사를 반영하는 6m 길이의 가상 작품인 마파 문디(Mappa Mundi) 시리즈의 치우즈지에(Qiu Zhijie) 작품을 앉아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영상을 위해 유명한 중국 예술감독 귀완징(Guo Wenjing)과 작곡가 리우하오(Liu Hao), 대나무 플루티스트 당준교(Ta ng Junciao), 피아니스트 팀 장(Tim Zhang)이 만든 사운드가 주위를 감싼다. 이 특별한 음악은 텍스타일 제조 공정, 전시 진행 과정과 구불구불한 길을 상상하게 하며 짧지만 의미 깊은 여정을 마무리한다. 상하이 현지 취재

11



12

Art of Craftsmanship

로에베가 지닌 탁월한 가죽공예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은 새로운 백이 탄생했다. 1846년 하우스가 창립된 본고장이자 오늘날에도 로에베 가죽 아틀리에가 자리한 도시, 마드리드를 본떠 명명한 '마드리드 백'이 그 주인공이다. 유연한 가죽 소재로 유려한 사다리꼴 실루엣을 그려냈으며 풍성한 플리츠로 장식한 측면과 매력적인 촉감의 조절식 핸들까지, 세련되고 도시적인 감각의 새로운 테일리 백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사토 드 뱅센(Château de Vincennes)에서 열린 2025 S/S 런웨이에서 처음 공개된 마드리드 백은 특별히 개발한 서플 카프 스킨 소재로 은은한 광택과 독보적으로 부드러운 감촉을 자랑한다. 백 내부는 나파 가죽 안감으로 완성했으며 마그네틱 잠금 홀과 잠금장치 모두 아나그램 인그레이빙한 페블로 구성했다.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하는 오버사이즈 지퍼 테일까지 완벽하다. 마드리드 올리브 미디엄 7백50만원, 마드리드 블랙 & 바건디 라지 8백50만원 모두 **로에베**. 문의 02-518-6416 에디터 **성정민**

(위부터 차례대로)
브랜드 고유 기술력인 누도 커팅을
적용했다. 좌우 각각 3개의 루벨라이트와
총 25개의 다이아몬드를 총총히 세팅한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 이어링, 핑크빛
원석의 영롱함을 강조하기 위해
6.75캐럿의 루벨라이트를 중심으로
2백28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로즈 골드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링, 큼직한 10.5캐럿의 루벨라이트
펜던트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체인 링크에
일정한 간격으로 총 2.55캐럿의 다이아몬드
2백38개를 세팅해 볼드하게 완성한
로즈 골드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에디터 **김하얀**



Shine High

온화한 빛 사이로 더 화려하게, 더 고귀하게. 포멜라토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압도적 형태와 빛에 관하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문의 031-5170-2168

NEW in NOW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해줄 2025 잇 백 포트레이트. PHOTOGRAPHED BY LEESANGHUN



트위드 소재 드레스, 자카드 소재
셔츠, 메탈 & 스트라스 이어링,
샤넬 25 호보 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실크 소재의 도트 재킷
6백20만원, 실크 소재의 톱
가격 미정, 아세테이트 소재의
러플 스커트 4백40만원, 플로럴
타이츠 1백33만원 모두 발렌티노.
크로커다일 소재의 배인! 백
2천9백20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오렌지 라이트웨이트 라-나일론
레인 재킷 2백80만원, 블랙
페더 장식의 오간자 드레스
1천1백30만원, 그레이 타이츠 가격
미정, 다크 브라운 핫 가격 미정,
브러시드 레더 슬링백 펌프스
1백62만원, 라지 에워드 백
6백만원 모두 프라다.

나파 레더 소재의 플리츠 드레스,
바레타 액세서리 디테일의 마젠타
버킷 백 모두 가격 미정 토즈



(왼쪽) 패일 옐로 시폰 플리츠 톱
4백79만원, 앤디크 레더 펜슬
스커트 6백45만원, T-바 프린지
샌들 가격 미정, 맥퀸 T-바 슬링
슬더백 3백80만원 모두 맥퀸,
(오른쪽) 드로스트링 및 포켓 디테일의
로소 잉코라 레더 올 카반, 로소
잉코라 올 레더 미니 톨립 스커트,
플렉시 웨지와 구찌 스크립트 디테일의
하이힐 뿔, 뱀무 모티브의 로소 잉코라
초커, 뱀무 디테일의 화이트 사이나
레더 백 모두 가격 미정 구찌.



네이비 컬러 울 & 실크 소재의
카 코트, 베스트, 팬츠, 기예라 스몰
쇼퍼 백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프라다 02-3442-1830
샤넬 080-805-9628
구찌 02-3452-1921
페라가모 02-3430-7854
토즈 02-3438-6008
발렌티노, 발렌티노 기라바니 02-2015-4655
로로피아나 02-6200-7799
맥퀸 02-6105-2226

샌비스코스 소재의 슬림 핏
드레스 가격 미정, 카프 스킨
스웨이드 소재의 허그 숄더백
4백25만원 모두 **페라가모**.

헤어 Ryunoshin Tomoyose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Camilla Gasanova
(Exclusive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NEW LIPSTICK

지방시 뷰티 로즈 퍼펙트 사인 세럼 립스틱 304 레드 코랄 생기발랄한 컬러로 바르는 순간 안색이 화사해져 요즘 자주 손이 가는 립스틱이다. 촉촉한 수분감은 물론 비타민 C 성분을 더해 건조한 입술을 효과적으로 케어해준다. 3.2g 5만원대.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신정임

Editor's Pick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스킨케어부터 장밋빛 립과 블러셔, 이국적인 향에 이르기까지. 주목할 만한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다들 뷰티 라 콜렉시옹 프리메 자스망 데 장주 살구를 품은 재스민 향이 청량한 여름을 미리 마주한 느낌이다. 여성스러운 플로럴 향이 아니라 더욱 '국호'! 100ml 45만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하얀

르라페 SMTR-s 100 디 시크릿 줄기세포 배양액과 허브 추출물 덕분에, 환절기에 거칠어진 피부가 며칠 사이 매끈해졌다. 4ml 19만6천원. 문의 070-767-6165 _by 에디터 김하얀

NEW CLEANSER

이속 엘레오스 너리싱 바디 클렌저 부드러운 크림 포물력과 풍성한 거품, 은은한 향까지. 최상의 사워 리추얼을 만들어주는 제품 500ml 6만5천원. 문의 1800-1987 _by 에디터 성정민



NEW CANDLE

멜린앤게츠 토마토 캔들 토마토와 허브 향이 집 안 가득 싱그럽고 상쾌한 느낌을 선사한다. 60시간 동안 연소되며, 다 사용하면 펜꽃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02-1644-449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플라초이스 프로콜라겐 펩타이드 수분 플럼핑 크림 곧 찾아올 덥고 습한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수분 가득 젤 크림 50ml 7만8천원. 문의 1661-6656 _by 에디터 성정민

키스 퍼퓸드 키스 핸드크림 세인트 베리 마돈나 백합꽃 추출물과 세라마이드 엔피를 함유해 손을 밝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핸드크림. 70ml 3만5천원대. 문의 070-4176-4616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돌체앤가바나 뷰티 글로우 바운스 세라마이드 크림 오렌지 꽃 추출물과 세라마이드, 피토글리코겐 성분을 담아 지친 피부에 탄력을 더해주고 보습력도 좋은 크림. 50ml 13만4천원. 문의 02-2143-7186 _by 에디터 신정임

NEW BLUSHER

겔랑 테라코타 블러쉬 01 라이트 핑크 아로간 오일을 담아 건조하지 않고 부드럽게 발리며,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5g 7만5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신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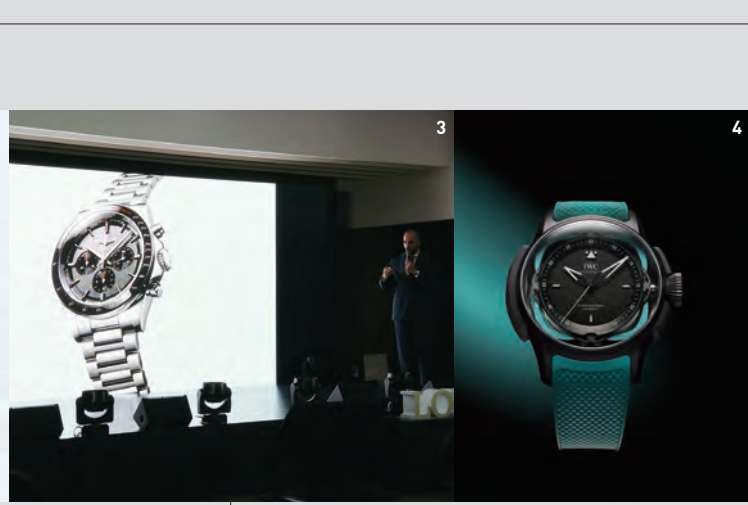
1 해밀턴 인트라-매틱 해밀턴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인 크로노-매틱을 모티브로 제작한 인트라-매틱을 선보였다. 이번 워치는 2개의 서브 다이얼과 크로노그래프 핸드, 날짜 인디케이터, 타키미터를 갖추었으며 28개의 주열로 장식한 무브먼트를 장착해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31-5170-1246

2 샤넬 뷰티 에콜라 프리미에 브라이트닝 밀키 에센스 로션 샤넬 뷰티에서 에콜라 프리미에 브라이트닝 밀키 에센스 로션을 제안한다. 프리미에르 플라워 추출물과 나이아신아미드를 함유해 피부 광채 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 유래 지주의 포몰로로 피붓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줘 최적의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3 론진 2025 프레스 미팅 론진이 지난 3월 6일 서울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프레스를 대상으로 최신 타임피스를 가장 먼저 선보이는 프레스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브랜드의 혁신과 조화를 공유하며 2025년 신제품 컬렉션을 세계 주요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79-1940

4 IWC 빅 파일럿 워치 쇼크 업소버 XPL 토토 울프 X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물러 원™ 팀 에디션 스위스 럭셔리 워치 브랜드 IWC에서 빅 파일럿 워치 쇼크 업소버 XPL 토토 울프 x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물러 원™ 팀 에디션을 1백피스 한정으로 출시했다. IWC의 SPRING-PROTECT® 충격 흡수 시스템과 페트로나스 팀의 시그니처 컬러를 모티브로 제작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1877-4315

5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글로우 세럼 파운데이션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라인에서 새롭게 '프리즘 리브르 글로우 세럼 파운데이션'을 출시했다. 마이크로 히알루론산 및 유자 추출물을 함유해 세럼을 사용한 듯 윤기와 결을 개선하며 얇게 밀착



되어 광채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80-801-9500

6 에르메스 워치 아쇼 30mm & 36mm 에르메스 워치의 대표 라인인 아쇼 컬렉션에서 30mm와 36mm 사이즈 모델을 소개한다. 말을 탈 때 발을 닫는 등자를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30mm, 36mm 사이즈의 스틸 케이스와 다양한 스트랩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542-6622

7 혼마골프 2025 투어월드 시리즈 'TW767' 혼마골프가 2013년 투어 선수를 위해 첫선을 보인 투어월드 시리즈에서 새로운 투어월드 TW767을 선보였다. 이번 제품은 투어 선수부터 아마추어 골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국내에는 TW767, TW767 MAX 드라이버 모델이 출시되며, 개인 스윙 차이에 따라 샤프트를 선택해 커스텀 오더할 수 있다. 문의 02-2140-1800

8 S.T. 듀폰 엑스-백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S.T. 듀폰에서 필기구와 라이터에 새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기호적 패턴을 재해석한 엑스-백을 선보였다. 3차원 가죽 형태로 제작해 독특하고 세련된 실루엣이 특징이다. 미디엄과 스몰 사이즈에 블랙, 브라운, 화이트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2106-3596

9 로로피아나 엑스트라 드로스트링 백팩 이탈리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엑스트라 드로스트링 백팩을 출시했다. 전면 포켓 클로저의 아이코닉한 LP 패들룩 디테일이 특징이며, 라이트 매스틱, 블루 네이비, 블랙, 워스퍼 화이트 등 다양한 컬러로 선보였다. 조절 가능한 어깨 스트랩으로 한쪽 어깨에 걸치거나 백팩으로 착용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문의 02-6200-7796

10 토즈 고미노 글로브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가 2025 S/S 시즌 새로운 여성 고미노 글로브를



출시했다. 카프 스킨과 카프 스킨 스웨이드, 2가지 버전으로 선보인 이번 신제품은 발뒤꿈치 부분을 접어 물로도 착용 가능한 편안함과 실용성을 겸비했다. 문의 02-3438-6008

11 그라프 버터플라이 컬렉션 그라프의 유서 깊은 모티브인 나비를 이용한 버터플라이 컬렉션을 소개한다. 마키즈 다이아몬드, 파베 다이아몬드, 컬러 젬스톤 등으로 나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링, 펜던트, 이어링 등 다양한 주얼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12 쏘아레 신세계백화점 본점 리뉴얼 오픈 쏘아레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지난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공식 인스타를 팔로우하면 아이코닉 샤세 2층을 증정하는 등 오픈 이벤트를 진행해 쏘아레의 제품을 경험해볼 수 있게 했으며, 전문적인 뷰티 카운슬링을 제공했다. 문의 02-310-5025



* 상영관(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10대, 120대, 130대, 140대, 150대, 160대, 170대, 180대, 190대, 200대, 210대, 220대, 230대, 240대, 250대, 260대, 270대, 280대, 290대, 300대, 310대, 320대, 330대, 340대, 350대, 360대, 370대, 380대, 390대, 400대, 410대, 420대, 430대, 440대, 450대, 460대, 470대, 480대, 490대, 500대, 510대, 520대, 530대, 540대, 550대, 560대, 570대, 580대, 590대, 600대, 610대, 620대, 630대, 640대, 650대, 660대, 670대, 680대, 690대, 700대, 710대, 720대, 730대, 740대, 750대, 760대, 770대, 780대, 790대, 800대, 810대, 820대, 830대, 840대, 850대, 860대, 870대, 880대, 890대, 900대, 910대, 920대, 930대, 940대, 950대, 960대, 970대, 980대, 990대, 1000대, 1010대, 1020대, 1030대, 1040대, 1050대, 1060대, 1070대, 1080대, 1090대, 1100대, 1110대, 1120대, 1130대, 1140대, 1150대, 1160대, 1170대, 1180대, 1190대, 1200대, 1210대, 1220대, 1230대, 1240대, 1250대, 1260대, 1270대, 1280대, 1290대, 1300대, 1310대, 1320대, 1330대, 1340대, 1350대, 1360대, 1370대, 1380대, 1390대, 1400대, 1410대, 1420대, 1430대, 1440대, 1450대, 1460대, 1470대, 1480대, 1490대, 1500대, 1510대, 1520대, 1530대, 1540대, 1550대, 1560대, 1570대, 1580대, 1590대, 1600대, 1610대, 1620대, 1630대, 1640대, 1650대, 1660대, 1670대, 1680대, 1690대, 1700대, 1710대, 1720대, 1730대, 1740대, 1750대, 1760대, 1770대, 1780대, 1790대, 1800대, 1810대, 1820대, 1830대, 1840대, 1850대, 1860대, 1870대, 1880대, 1890대, 1900대, 1910대, 1920대, 1930대, 1940대, 1950대, 1960대, 1970대, 1980대, 1990대, 2000대, 2010대, 2020대, 2030대, 2040대, 2050대, 2060대, 2070대, 2080대, 2090대, 2100대, 2110대, 2120대, 2130대, 2140대, 2150대, 2160대, 2170대, 2180대, 2190대, 2200대, 2210대, 2220대, 2230대, 2240대, 2250대, 2260대, 2270대, 2280대, 2290대, 2300대, 2310대, 2320대, 2330대, 2340대, 2350대, 2360대, 2370대, 2380대, 2390대, 2400대, 2410대, 2420대, 2430대, 2440대, 2450대, 2460대, 2470대, 2480대, 2490대, 2500대, 2510대, 2520대, 2530대, 2540대, 2550대, 2560대, 2570대, 2580대, 2590대, 2600대, 2610대, 2620대, 2630대, 2640대, 2650대, 2660대, 2670대, 2680대, 2690대, 2700대, 2710대, 2720대, 2730대, 2740대, 2750대, 2760대, 2770대, 2780대, 2790대, 2800대, 2810대, 2820대, 2830대, 2840대, 2850대, 2860대, 2870대, 2880대, 2890대, 2900대, 2910대, 2920대, 2930대, 2940대, 2950대, 2960대, 2970대, 2980대, 2990대, 3000대, 3010대, 3020대, 3030대, 3040대, 3050대, 3060대, 3070대, 3080대, 3090대, 3100대, 3110대, 3120대, 3130대, 3140대, 3150대, 3160대, 3170대, 3180대, 3190대, 3200대, 3210대, 3220대, 3230대, 3240대, 3250대, 3260대, 3270대, 3280대, 3290대, 3300대, 3310대, 3320대, 3330대, 3340대, 3350대, 3360대, 3370대, 3380대, 3390대, 3400대, 3410대, 3420대, 3430대, 3440대, 3450대, 3460대, 3470대, 3480대, 3490대, 3500대, 3510대, 3520대, 3530대, 3540대, 3550대, 3560대, 3570대, 3580대, 3590대, 3600대, 3610대, 3620대, 3630대, 3640대, 3650대, 3660대, 3670대, 3680대, 3690대, 3700대, 3710대, 3720대, 3730대, 3740대, 3750대, 3760대, 3770대, 3780대, 3790대, 3800대, 3810대, 3820대, 3830대, 3840대, 3850대, 3860대, 3870대, 3880대, 3890대, 3900대, 3910대, 3920대, 3930대, 3940대, 3950대, 3960대, 3970대, 3980대, 3990대, 4000대, 4010대, 4020대, 4030대, 4040대, 4050대, 4060대, 4070대, 4080대, 4090대, 4100대, 4110대, 4120대, 4130대, 4140대, 4150대, 4160대, 4170대, 4180대, 4190대, 4200대, 4210대, 4220대, 4230대, 4240대, 4250대, 4260대, 4270대, 4280대, 4290대, 4300대, 4310대, 4320대, 4330대, 4340대, 4350대, 4360대, 4370대, 4380대, 4390대, 4400대, 4410대, 4420대, 4430대, 4440대, 4450대, 4460대, 4470대, 4480대, 4490대, 4500대, 4510대, 4520대, 4530대, 4540대, 4550대, 4560대, 4570대, 4580대, 4590대, 4600대, 4610대, 4620대, 4630대, 4640대, 4650대, 4660대, 4670대, 4680대, 4690대, 4700대, 4710대, 4720대, 4730대, 4740대, 4750대, 4760대, 4770대, 4780대, 4790대, 4800대, 4810대, 4820대, 4830대, 4840대, 4850대, 4860대, 4870대, 4880대, 4890대, 4900대, 4910대, 4920대, 4930대, 4940대, 4950대, 4960대, 4970대, 4980대, 4990대, 5000대, 5010대, 5020대, 5030대, 5040대, 5050대, 5060대, 5070대, 5080대, 5090대, 5100대, 5110대, 5120대, 5130대, 5140대, 5150대, 5160대, 5170대, 5180대, 5190대, 5200대, 5210대, 5220대, 5230대, 5240대, 5250대, 5260대, 5270대, 5280대, 5290대, 5300대, 5310대, 5320대, 5330대, 5340대, 5350대, 5360대, 5370대, 5380대, 5390대, 5400대, 5410대, 5420대, 5430대, 5440대, 5450대, 5460대, 5470대, 5480대, 5490대, 5500대, 5510대, 5520대, 5530대, 5540대, 5550대, 5560대, 5570대, 5580대, 5590대, 5600대, 5610대, 5620대, 5630대, 5640대, 5650대, 5660대, 5670대, 5680대, 5690대, 5700대, 5710대, 5720대, 5730대, 5740대, 5750대, 5760대, 5770대, 5780대, 5790대, 5800대, 5810대, 5820대, 5830대, 5840대, 5850대, 5860대, 5870대, 5880대, 5890대, 5900대, 5910대, 5920대, 5930대, 5940대, 5950대, 5960대, 5970대, 5980대, 5990대, 6000대, 6010대, 6020대, 6030대, 6040대, 6050대, 6060대, 6070대, 6080대, 6090대, 6100대, 6110대, 6120대, 6130대, 6140대, 6150대, 6160대, 6170대, 6180대, 6190대, 6200대, 6210대, 6220대, 6230대, 6240대, 6250대, 6260대, 6270대, 6280대, 6290대, 6300대, 6310대, 6320대, 6330대, 6340대, 6350대, 6360대, 6370대, 6380대, 6390대, 6400대, 6410대, 6420대, 6430대, 6440대, 6450대, 6460대, 6470대, 6480대, 6490대, 6500대, 6510대, 6520대, 6530대, 6540대, 6550대, 6560대, 6570대, 6580대, 6590대, 6600대, 6610대, 6620대, 6630대, 6640대, 6650대, 6660대, 6670대, 6680대, 6690대, 6700대, 6710대, 6720대, 6730대, 6740대, 6750대, 6760대, 6770대, 6780대, 6790대, 6800대, 6810대, 6820대, 6830대, 6840대, 6850대, 6860대, 6870대, 6880대, 6890대, 6900대, 6910대, 6920대, 6930대, 6940대, 6950대, 6960대, 6970대, 6980대, 6990대, 7000대, 7010대, 7020대, 7030대, 7040대, 7050대, 7060대, 7070대, 7080대, 7090대, 7100대, 7110대, 7120대, 7130대, 7140대, 7150대, 7160대, 7170대, 7180대, 7190대, 7200대, 7210대, 7220대, 7230대, 7240대, 7250대, 7260대, 7270대, 7280대, 7290대, 7300대, 7310대, 7320대, 7330대, 7340대, 7350대, 7360대, 7370대, 7380대, 7390대, 7400대, 7410대, 7420대, 7430대, 7440대, 7450대, 7460대, 7470대, 7480대, 7490대, 7500대, 7510대, 7520대, 7530대, 7540대, 7550대, 7560대, 7570대, 7580대, 7590대, 7600대, 7610대, 7620대, 7630대, 7640대, 7650대, 7660대, 7670대, 7680대, 7690대, 7700대, 7710대, 7720대, 7730대, 7740대, 7750대, 7760대, 7770대, 7780대, 7790대, 7800대, 7810대, 7820대, 7830대, 7840대, 7850대, 7860대, 7870대, 7880대, 7890대, 7900대, 7910대, 7920대, 7930대, 7940대, 7950대, 7960대, 7970대, 7980대, 7990대, 8000대, 8010대, 8020대, 8030대, 8040대, 8050대, 8060대, 8070대, 8080대, 8090대, 8100대, 8110대, 8120대, 8130대, 8140대, 8150대, 8160대, 8170대, 8180대, 8190대, 8200대, 8210대, 8220대, 8230대, 8240대, 8250대, 8260대, 8270대, 8280대, 8290대, 8300대, 8310대, 8320대, 8330대, 8340대, 8350대, 8360대, 8370대, 8380대, 8390대, 8400대, 8410대, 8420대, 8430대, 8440대, 8450대, 8460대, 8470대, 8480대, 8490대, 8500대, 8510대, 8520대, 8530대, 8540대, 8550대, 8560대, 8570대, 8580대, 8590대, 8600대, 8610대, 8620대, 8630대, 8640대, 8650대, 8660대, 8670대, 8680대, 8690대, 8700대, 8710대, 8720대, 8730대, 8740대, 8750대, 8760대, 8770대, 8780대, 8790대, 8800대, 8810대, 8820대, 8830대, 8840대, 8850대, 8860대, 8870대, 8880대, 8890대, 8900대, 8910대, 8920대, 8930대, 8940대, 8950대, 8960대, 8970대, 8980대, 8990대, 9000대, 9010대, 9020대, 9030대, 9040대, 9050대, 9060대, 9070대, 9080대, 9090대, 9100대, 9110대, 9120대, 9130대, 9140대, 9150대, 9160대, 9170대, 9180대, 9190대, 9200대, 9210대, 9220대, 9230대, 9240대, 9250대, 9260대, 9270대, 9280대, 9290대, 9300대, 9310대, 9320대, 9330대, 9340대, 9350대, 9360대, 9370대, 9380대, 9390대, 9400대, 9410대, 9420대, 9430대, 9440대, 9450대, 9460대, 9470대, 9480대, 9490대, 9500대, 9510대, 9520대, 9530대, 9540대, 9550대, 9560대, 9570대, 9580대, 9590대, 9600대, 9610대, 9620대, 9630대, 9640대, 9650대, 9660대, 9670대, 9680대, 9690대, 9700대, 9710대, 9720대, 9730대, 9740대, 9750대, 9760대, 9770대, 9780대, 9790대, 9800대, 9810대, 9820대, 9830대, 9840대, 9850대, 9860대, 9870대, 9880대, 9890대, 9900대, 9910대, 9920대, 9930대, 9940대, 9950대, 9960대, 9970대, 9980대, 9990대, 10000대, 10001대, 10002대, 10003대, 10004대, 10005대, 10006대, 10007대, 10008대, 10009대, 10010대, 10011대, 10012대, 10013대, 10014대, 10015대, 10016대, 10017대, 10018대, 10019대, 10020대, 10021대, 10022대, 10023대, 10024대, 10025대, 10026대, 10027대, 10028대, 10029대, 10030대, 10031대, 10032대, 10033대, 10034대, 10035대, 10036대, 10037대, 10038대, 10039대, 10040대, 10041대, 10042대, 10043대, 10044대, 10045대, 10046대, 10047대, 10048대, 10049대, 10050대, 10051대, 10052대, 10053대, 10054대, 10055대, 10056대, 10057대, 10058대, 10059대, 10060대, 10061대, 10062대, 10063대, 10064대, 10065대, 10066대, 10067대, 10068대, 10069대, 10070대, 10071대, 10072대, 10073대, 10074대, 10075대, 10076대, 10077대, 10078대, 10079대, 10080대, 10081대, 10082대, 10083대, 10084대, 10085대, 10086대, 10087대, 10088대, 10089대, 10090대, 10091대, 10092대, 10093대, 10094대, 10095대, 10096대, 10097대, 10098대, 10099대, 10100대, 10101대, 10102대, 10103대, 10104대, 10105대, 10106대, 10107대, 10108대, 10109대, 10110대, 10111대, 10112대, 10113대, 10114대, 10115대, 10116대, 10117대, 10118대, 10119대, 10120대, 10121대, 10122대, 10123대, 10124대, 10125대, 10126대, 10127대, 10128대, 10129대, 10130대, 10131대, 10132대, 10133대, 10134대, 10135대, 10136대, 10137대, 10138대, 10139대, 10140대, 10141대, 10142대, 10143대, 10144대, 10145대, 10146대, 10147대, 10148대, 10149대, 10150대, 10151대, 10152대, 10153대, 10154대, 10155대, 10156대, 10157대, 10158대, 10159대, 10160대, 10161대, 10162대, 10163대, 10164대, 10165대, 10166대, 10167대, 10168대, 10169대, 10170대, 10171대, 10172대, 10173대, 10174대, 10175대, 10176대, 10177대, 10178대, 10179대, 10180대, 10181대, 10182대, 10183대, 10184대, 10185대, 10186대, 10187대, 10188대, 10189대, 10190대, 10191대, 10192대, 10193대, 10194



CHANEL
THE CHANEL 25 HANDBAG